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JEONJU INT'L SORI FESTIVAL

전북소리 축제

2024 3rd

전주

JEONJU INT'L SORI FESTIVAL

2024. 8. 18. Sun

2024. 8. 14. Wed

주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소리 전주소리문화의전당 후원 전북은행 전북농협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키워드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
(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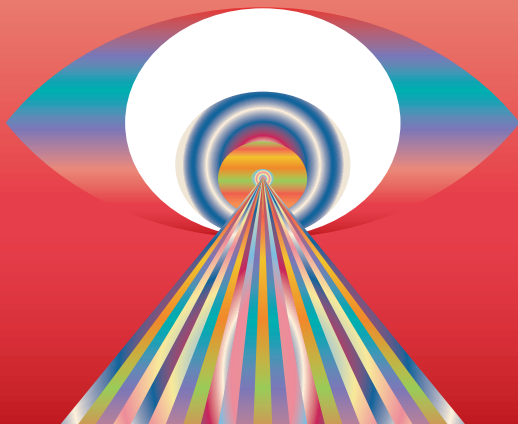
전북예술과 예술가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글로벌적 시선부터 시대, 세대, 장르, 지역적 해석의 시선까지 다양한 프리즘으로 탐구, 소리축제의 ‘로컬’을 다양한 혹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다른 로컬음악(월드뮤직)과의 대화와 다른 음악 장르(클래식, 대중음악)와의 만남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전하고, ‘전북예술’을 확장된 시각으로 다채롭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귀한 전통의 가치와 동시대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The key theme of this year’s festival implies the festival’s aim of exploring a prism of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 including global, periodical, generational, genre, and regional ones – with the foci of arts and artists of Jeonbuk State, and the orientation of enlarging these perspectives to new ground. In addition, the festival hopes to convey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through offering a field of interactions between local musics (including “world musics”) and of encounters with other genres (such as classical and popular music), and thereby create new, colorful interpretations of Jeonbuk art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transmission of valuable traditions and their contemporary meanings.

표지설명

2024 소리축제 포스터는 ‘로컬 프리즘’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소리축제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8월 여름에 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축제를 더욱 핫하게 즐겨보자는 콘셉트의 붉은 계열 색상을 통해 뜨거운 강렬함을 강조했다.

The official poster of the 2024 Sori Festival expresses the identity of the festival through a symbolic image that intuitively conveys the concept of “local prism.” It focuses on the visual expression of the festival’s unique identity and emphasizes the feverish nature of the festival through the red color, which reflects the festival’s aim to make itself hotter as it is held in August during the summer period.



- ☰ sorifestival.com
- ☰ enjoy_sorifestival
- ☰ sorifestival
- ☰ sori_festival
- ☰ sorifestival



공연 상세 정보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란?

전북에듀페이 학습 및 진로 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체크카드

신청기간

4월 11일(목) ~ 11월 29일(금)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 사용자(학생)의 이름으로 바우처 지원비 이용금액의 0.1% 기부를 전북은행에서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100%가 기부활동 참여)

온라인 신청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북은행 "쓱뱅크"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 발급 후 바우처 지원비를 신청해야만 완료됩니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 금융 플랫폼 전북은행 쓱뱅크



* 전북에듀페이 전용 앱에서도 바우처카드 및 바우처 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 혜택
- ☑️ 도서사립 2인시 2% 캐시백
- ☑️ 전북대내 영화관 5,000원 이상 사용시 3,000원 캐시백
- ☑️ 전국 모든 제과점 사용액 10% 캐시백
- ☑️ 전주동물원 입장료 1,500원 캐시백
- ☑️ S-Oil 주유소(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리타당 50원 캐시백

* 자세한 내용은 전북에듀페이 체크카드 안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바우처 지원비와 체크카드 혜택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예) 영화관에서 결제시 청소년 할인 + 바우처 지원비 사용 + 3,000원 캐시백 동시 수혜

- 혜택 제공 시점에 일사장치 및/또는 연체 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기간 및 금액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47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로 신청할 시 약관을 동의해야 합니다.
- 원로(상호)로 신청 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회원님의 개인신용평가 이용현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신용등급은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지연)·회생·이용상환불의정금(과납·과징금), 반정 최고금리(연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연정금리가 있는 경우는 이대로 같이 적용함
- 일일 결제 금액 시: 가맹점생 사용자 최소 (7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500만 원 이하 결제 금액 시: 가맹점생 사용자 동등한 할부 금리(7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환금 상 한도(이자 상환금액)가계대출 기준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발행·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기준통계(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함
- 준법감시인 승인일: 제2024-다-886(유효)기간: 2024.11.29까지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쌀의 효능

쌀은 위의 기능을 강화해 주고, 근육을 키우며 속을 따뜻하게 해, 기운을 돋우며 안면을 제정한다. 또한 소화기병을 가진 허약 체질의 환자에게 식이 요인의 훌륭한 약제이다.

- 동의보감 쌀의 효능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일액률에 비례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5.5% 공제)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을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기부]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농협
※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1인당 1회)

협찬사

전북은행 전북농협



파트너



한국방송공사 전주MBC JTV 전북CBS 한경arteTV G 국악방송

지역협력기관



Contents

0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환영사	77 해외초청&월드뮤직: 대화와 소통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축하의 글	78 폴란드 포커스
12 조직위원장 환영사	79 피오프르 다마시에비치 - 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
14 집행위원장 감사의 말씀	80 블로시×채수현
16 페스티벌 맵(한국소리문화의전당)	82 [네덜란드×인도네시아] 누산타라 비트
18 프로그램 일정표(한국소리문화의전당)	83 [아일랜드×이탈리아] 타란타켈티카
20 페스티벌 맵(전주한옥마을)	84 [일본] 해설이 있는 일본 사자춤
21 프로그램 일정표(전주한옥마을)	85 전주세계소리축제×국립아시아문화전당
22 티켓안내	86 [말레이시아] 이스타나 부다야 전통음악 앙상블
24 포커스 2024: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	87 [베트남] 전통앙상블 <푸 쿠이>
25 개막공연 <잡색X>	88 [태국] 포트트로니카 <니사티와>
28 폐막공연 <조상현&신영희의 빅쇼>	
31 전통: 오래된 결	89 어린이 소리축제: 헬로우! 패밀리
32 판소리 다섯바탕	90 [폴란드 포커스] 마웨 인스트루먼트
- 이자람, 김영자, 왕기석, 박가빈, 채수정	92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가 할아버지>
42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93 어린이 소리축제 주말 프로그램 일정표
- 김송지, 조규경, 강현영, 이정인, 박수범	94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木林森)>
46 산조의 밤 <지성자, 정희천>	95 [체코] 오브제 씨어터 <리틀 비지터>
48 풍물굿 열전	96 세계음악여행
- 이리농악, 고창농악	- 아일랜드&이탈리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 전주기적놀이×일본 이시가와현	98 어린이 소리축제 두 배 즐기기
- 타케베 시시마이	
- 강릉농악, 진안중평굿	99 찾아가는 소리축제&아카데미: 글로벌 랩
54 창작&컨템포러리: 동시대 우리 음악	100 소리학술포럼
55 프로젝트날다×천하제일탈공작소	102 찾아가는 소리축제
<니나내나 니나노>	104 소리캠프
56 음악극 <적로-미술의 노래>	105 소리마을로 오세요! 여름바캉스!
58 강은일 해금플러스	107 소리축제: 네 계절
59 전주의 아침	108 월드뮤직 아카데미
- 리코더와 정가가 들려주는 노래	109 소리축제 상/하반기 사업
- 랜디 레인-루쉬&메이 한의 월드뮤직	110 스태프
- 시대가 전하는 춤 이야기	
62 추리밴드 / 국악 이상 / 삼산	
65 소리프론티어×소리의 탄생2	

환영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올해로 스물세 번째를 맞이하는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축제를 찾아주신 국내·외 음악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품격있는 축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왕준 조직위원장님과 김희선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여름 날의 소리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판소리, 농악 등 우리의 전통음악과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북의 뿌리인 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13개국 106회의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많은 분께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깊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북을 시작합니다.

올해 1월 18일에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전통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꽃피우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유산을 현대기술과 융합하여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고, 전북의 문화 영토를 세계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전북 문화의 중심에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명인과 젊은 소리꾼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하고, 축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도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Welcome Message

Greetings From Kim Kwan-young, Governor of Jeonbuk State.

Congratulations on the 2024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hich is celebrating its twenty-third year. I would like to welcome all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ians who have visited the festival. I would like to thank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 Lee Wangjun and Executive Committee Chairwoman Kim Hee-sun for their efforts in preparing a high-quality festival despite the heat.

Sori Festival in Midsummer is Coming.

This year's festival, themed “Local Prism: Exlarging Perspectives”, will feature a variety of performances of traditional music including pansori and nongak as well as classical and popular music. Starting with the opening performance, which is a modern interpretation of nongak, the roots of Jeonbuk region, the festival will feature 105 performances from 13 countries over five days.

New Jeonbuk State Begins with the Foundational Basis of Deep Tradition

The new Jeonbuk State, which was inaugurated on January 18th this year, hopes to blossom a new future based on its long tradition. We will create global content by fus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with modern technology, and expand the cultural territory of Jeonbuk State to the world.

At the Center of Jeonbuk Culture is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s a place to communicate through music that covers tradition and modernity both.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masters and young artists to come together to perform and grow through festivity. I hope this festival will be an opportunity to showcase our province's cultural assets to the world and further grow Jeonbuk State as a center for culture and arts. I wish you all good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2024. 8.

Kim Kwan-young,
Governor of Jeonbuk State

축하의 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여름에 개최됩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와 함께 더 뜨겁고 열정 가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고, 예술가와 예술가가 만나 소리로 소통하는 커다란 장이기도 합니다.

‘컬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북예술과 예술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해 전북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덧새간의 여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전통의 원류는 깊이 있게, 새롭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전통은 변화와 확장으로, 우리 음악과 세계음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예술성부터 대중성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두루 포진되어 있어 소리축제의 이색적인 공연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왕준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Congratulatory Message

Hello and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2024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is year's Sori Festival will be held in the summer. It is expected to be a hotter and more passionate festival with new changes.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 representative performing arts festival in Jeonbuk State and Korea, is where audiences can meet not only traditional music but also other genres. It is also a great place for artists and audiences to meet, and for artists to mee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sound.

Held with the key theme of "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presents a unique programme centered on Jeonbuk State's art and artists, viewing reinterpreting them through various prisms.

A variety of programs connec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for five days will delight all visitors' eyes and ears. The origins of tradition will be explored in depth, and new and different ways of looking at traditions will be enlarged in changes. In addition, our traditional music and musics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come together.

It will be a joyful summer holiday to visit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s colorful programs that include a wide range of performances enjoyable for all generations, which both artistry and popularity.

I would like to once again congratulat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Lee Wangjun, 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and all the member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festival. Thank you.

2024. 8.
Moon Seungwoo,
Chairman of Jeonbuk State Council

환영사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

안녕하십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해에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담긴 도민 여러분의 애정을 어떻게 보답할지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떡하면 전북지역의 축제를 넘어 하나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소리축제가 될 수 있을까? 더 많은 전통 음악인이 함께하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저희 조직위원들과 집행위원, 사무국 식구들과 함께 많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올해 축제는 여름축제로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의 변화가 아닌 축제 참여의 저변을 넓히고 더욱 여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대전환의 시작을 뜻합니다.

올해 소리축제는 국악을 필두로 클래식·창작&컨템포러리·해외 민속음악&월드뮤직·학술포럼&캠프·어린이 소리축제·대중음악의 확장을 통해 로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속에 전통음악은 깊이 있고 원숙하게, 새로운 시도는 혁신과 변화로 풍성하게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 예술가인 전국의 국악/음악 전공 중고등·대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세대 전통음악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리축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 소리축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실내 공연작품 중심으로 예술성이 뛰어난 최고 수준의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아울러, 야외공연은 도민들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한여름의 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다 같이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관영 도지사님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전북은행, 전북농협, 프레시코, 정관장, 이오일스페이스, 조경가든센터, 이강주 등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축제를 준비해주신 조직위원님들, 집행위원님들, 김희선 집행위원장과 사무국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초대합니다!

2024. 8.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

Welcome Message

Hello, I am Lee Wangjun, chairman of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 representative festival of Korea produced with the residents of Jeonbuk State.

When I took over the organizing committee last year, I thought a lot about how to repay the love of the people of Jeonbuk toward our festival. How can we develop our Sori Festival into a global hub beyond the Jeonbuk region? How can we bring more traditional musicians to our festival and make it more residents-friendly?

After several times of meetings with the members of organizing committee, executive committee, and executive office, we decided to move the festival date to summer this year. This is not a mere change in timing, but the beginning of big transformation to broaden festival-participation and add summer-friendly programs.

This year's Sori Festival aims to rediscover local values through our expanded programs of classical, creative, contemporary, popular, folk and world musics, and of academic forums, camps and Sori festival for kids, in addition to traditional music.

We aim to enrich traditional music with depth and sophistication, and new musical attempts with innovation and change amongst a variety of perspectives on Korean traditional arts.

In addition, we have tried to fulfil the original role of our festival by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o engage students of traditional music and train them to become the next generation of traditional musicians representing Korea.

This year's festival will feature top-notch performances with outstanding artistic quality at Sori Arts Center. In addition, we prepared several people-friendly outdoor programs that can be enjoyed during summer nights. We hope you will enjoy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ogether.

I would like to thank Governor Kim Kwan-young for his support for the success of our festival, and our sponsors – Jeonbuk Bank, Jeonbuk Nonghyup, 251 Space, garden center for landscape architecture, and Igangju.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executive committee chairwoman Kim Hee-sun and the members of the organizing executive committees and executive office of the festival. We invite you all to our 2024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2024. 8.

Lee Wangju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감사의 말씀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김희선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하고 숨 쉬어온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올해는 한 여름밤의 축제로 거듭납니다. 소리축제는 올해부터 8월 여름 축제로 개최 시기를 옮김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름 축제가 된 소리축제는 실내극장의 작품성 있는 공연과 야외극장의 핫 섬머 나이트 공연으로 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 소리축제 키워드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제인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선연적으로 표방합니다. 전북의 예술과 예술가를 키워드로 삼아 글로벌의 시선부터 시대, 세대, 장르, 지역적 해석의 시선까지 우리 예술의 다양한 프리즘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로컬음악(월드뮤직)과의 대화와 다른 음악 장르(클래식, 대중음악)와의 만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담고자 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판소리와 전북의 소리를 담아오며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 음악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전 세계 13개국에서 참여한 예술가들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구성한 총 80개 106회 공연과 부대행사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감영, 익산 나바위성당 등지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전북예술의 근간이자 공동체 예술의 집약체인 농악을 주인공으로 축제의 키워드를 담은 개막공연 <잡색>를 선보입니다. 또한 소리축제의 변치 않는 주인공 판소리를 주제로, 근현대사 미디어의 한켠에 자리 잡았던 소리 역사를 보여줄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를 무대에 올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늘의 작품과 예술가를 무대에 선보일 소리축제가 큰 포부를 갖고 준비하는 이 두 프로덕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막공연의 적극 연출과 원일 음악감독, 임실필봉농악의 양진성 명인님과 출연진, 폐막공연의 조상현, 신영희 국창님, 이왕수 연출, 안선우 작가와 출연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리축제는 올해 초부터 14개 시군의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그간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은 올해 축제와 앞으로의 축제를 함께 만드는 귀중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만들어 주시는 예술가와 관객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혁신하며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고자 애쓰시는 김관영 도지사님, 후원사, 조직위원, 집행위원, 축제를 위해 밤을 꼬박새며 준비한 우리 사무국 식구들과 스태프, 감독, 연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지만, 소리축제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의 열기는 소리축제 기간 내내 계속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 8.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김희선

Thank You Message

We warmly welcome everyone to the 23rd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Our festival, which has been living and breathing with the residents of Jeonbuk State, will be newly transformed into a summer night festival this year. The Sori Festival is making new changes by moving the festival date to August. This year, in particular, we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enhance artistry and festivity by designing quality indoor performances and outdoor stages “Hot Summer Nights”.

The key theme of this year’s festival is “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 This implies our oriented identity as a performing arts festival representing Jeonbuk State. With the foci on arts and artists of Jeonbuk State, we will present a prism through which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 including global, periodical, generational, genre, and regional – can be experienced. In addition, we hope that you will feel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through interactions with other local musics (including “world musics”) and encounters with other genres (such as classical and popular music).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s been showcasing the sounds of Jeonbuk State including pansori since 2001, and has become a representative music festival of Korea. This year’s festival will feature a total of 105 performances events of 78 projects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from 13 countries at Sori Arts Center, Jeolla Gamyong Complex, Nabawi Cathedral (of Iksan), etc. In particular, this year’s opening concert “Japsaek X” will feature nongak (farmers’ music), the artistic backbone of Jeonbuk province and an integration of community arts, which reflects the key theme of the festival. Our festival will also present “Cho Sanghyeon & Shin Younghee: Big Show” based on pansori, the festival’s constant protagonist, which will show the sound-history within the media-scape of Korea. These two productions, made with the festival’s ambition to bring today’s artworks and artists representing Korea to the stage, are, I believe, of great significance. I would like to thank stage director Jeokgeuk, music director Won Il, Master Yang Jin-sung of “Imsil Pilbong Nongak” and all the performers for the opening concert, and Master Cho Sanghyeon and Shin Younghee for the closing performance, as well as director Lee Wangsoo, writer Ahn Sunwoo and the cast members.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our festival has been traveling to 14 subregions to share the festivity with a wider audience in Jeonbuk State. We are confident that the residents’ support will be an invaluable driving force for this year’s and future festivals.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artists and audiences who co-make our festival, Governor Kim Kwanyoung, who is striving to create a new Jeonbuk State through innovation, as well as our sponsors, members of organizing and executive committees, our board members, staffs, directors and producers, who worked through nights to make the festival a success. Despite the summer heat, we convince that the passion of our festival-loving audiences will continue throughout the festival period. Again,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each and every festival visitor.

2024. 8.

Kim Hee-sun, Chairpers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전주세계소리축제

- 📍 종합안내소 Information Box
- 🎫 종합매표소 General Ticket Office
- 🛒 굿즈샵 Goods Shop
- 📰 프레스센터 Press Center
- 🎨 아티스트라운지 Artist Lounge
- 🎪 공연장소 Venue

기타시설

- 1️⃣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 2️⃣ 푸드트럭&먹거리존 Food Truck & Food Zone
- 3️⃣ 편의점 convenience store
- 4️⃣ 체험존 Experience Zone
- 5️⃣ 플라마켓 Flea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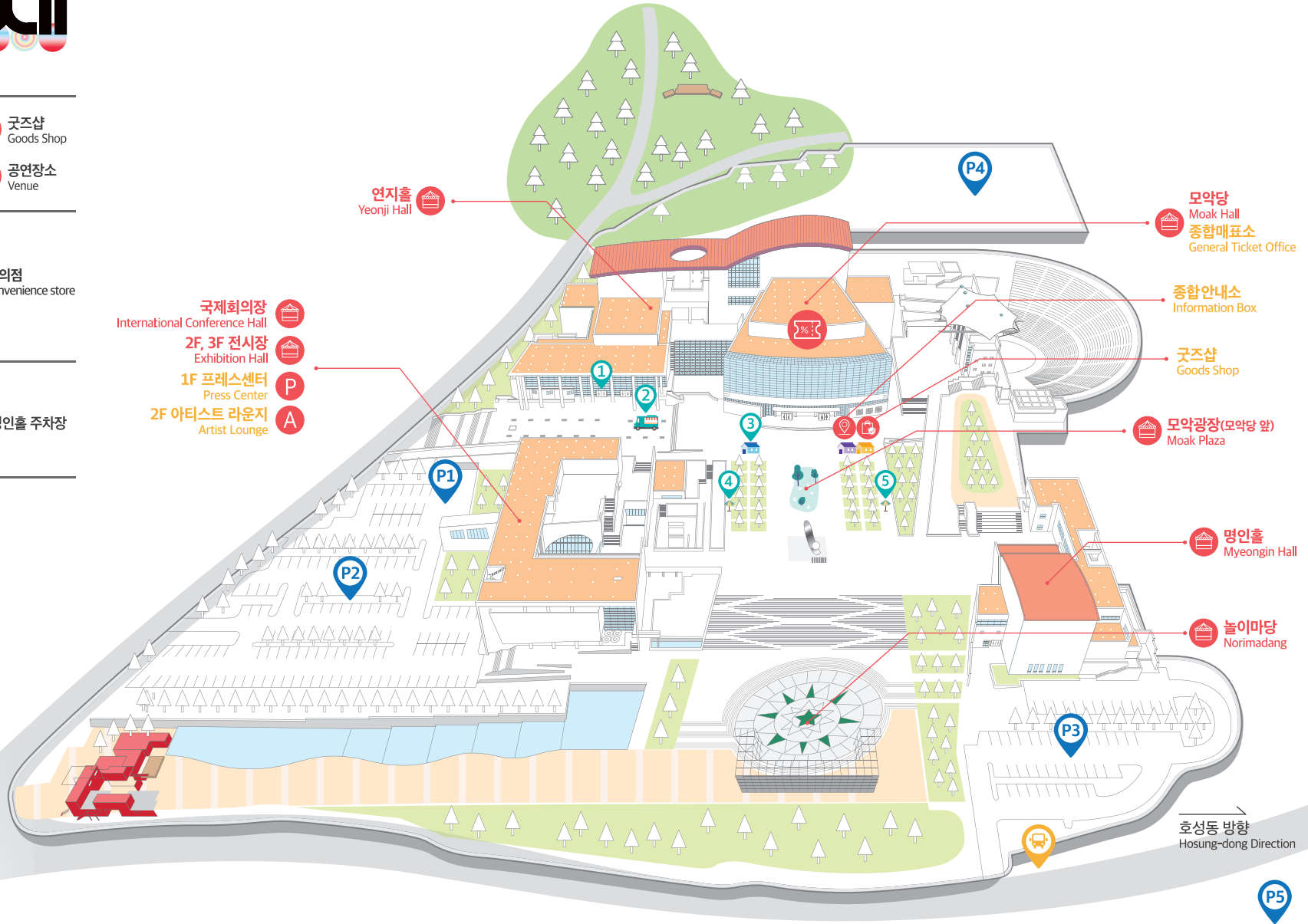
주차장 Parking Lot

- 🅐P1 연지홀 지하주차장
- 🅐P2 국제회의장 주차장
- 🅐P3 명인홀 주차장
- 🅐P4 야외공연장 주차장
- 🅐P5 동물원 주차장(18시 이후)

- 🚌 시내버스 승강장 Bus stop

← 송천동 방향
Songcheon-dong Direction

→ 호성동 방향
Hosung-dong Direction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일자/장소	8/14(수)	8/15(목)	8/16(금)	8/17(토)	8/18(일)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모악당	19:30 개막공연 <잡색X>	14:00 개막공연 <잡색X> ※ 관객과의 대화 (공연 종료 후)	19:00 전주세계소리축제X 전북CBS <정경화&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18:00 폐막공연 <조상현&신영희의 빅쇼>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연지홀		15:00/19:30 음악극 <적로-미술의 노래>		15:00 호남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녹두>	15:00 세종솔로이스츠 <바이올린 엑스트라 바간자>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명인홀	14:00 판소리 다섯바탕 -시대의 명창 <이자람-적벽가>	14:00 판소리 다섯바탕 -올해의 국창 <김영자-심청가>	14:00 판소리 다섯바탕 <황기석-수궁가>	14:00 판소리 다섯바탕 -라이징 스타 <박가빈-춘향가>	14:00 판소리 다섯바탕 -시대의 명창 <채수정-홍보가>
			20:00 산조의 밤 <지성자, 정회천>		
		소리썸머나잇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아외공연장	19:00 추리밴드 20:00 [아일랜드 X 이탈리아] 타란타켈티카 21:00 [폴란드 포커스] 볼로시 X 채수현	19:00 국악 이상 20:00 강은일 해금플러츠 21:00 글렌체크/ 타이거 디스코	19:00 삼산 20:00 [폴란드 포커스] 피오토르 다마시에 비치 -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 21:00 윈디시티 X 이박사	19:00 소리프론티어 X 소리의 탄생2 20:30 [네덜란드 X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비트	
	18:30 풍물굿 열전 <이리농악>	18:30 풍물굿 열전 <고창농악>	18:00 풍물굿 열전 <전주기집놀이 X 일본 이시가와현 타케베 시시마이>	18:00 풍물굿 열전 <강릉농악>	18:00 [네덜란드 X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비트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모악광장/ 놀이마당			19:00 [말레이시아] 이스타나 부다야 전통음악 앙상블	19:00 [베트남] 전통앙상블 <뚜 쿠이>	19:30 풍물굿 열전 <진안중평곡>
	20:00 놀이마당 프로젝트 날다 X 천하제일탈공작소 <니나네나 니나노>	20:00 놀이마당 프로젝트 날다 X 천하제일탈공작소 <니나네나 니나노>	20:10 [아일랜드 X 이탈리아] 타란타켈티카	20:10 [태국] 포크트로니카 <니사티와>	
		어린이 소리축제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전시장	10:00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 12:00 마웨 인스트루 먼트 - 작은 악기들의 세상 14:00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 16:00 마웨 인스트루 먼트 - 나만의 악기 만들기	10:00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 12:00 마웨 인스트루 먼트 - 작은 악기들의 세상 14:00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 16:00 마웨 인스트루 먼트 - 나만의 악기 만들기	10:00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 11:30 오브제씨어터 <리틀 비지터> 13:30 세계음악여행 <아일랜드&이탈리아> 16:00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 17:00 오브제씨어터 <리틀 비지터>	10:30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 11:30 오브제씨어터 <리틀 비지터> 13:30 세계음악여행 <폴란드> 16:00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 17:00 오브제씨어터 <리틀 비지터>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종회의장	14:00 한국풍물국악회 <전북의 농악 - 농악 전승 담론과 현실>	14:00 무형역사기록학회 <전북의 춤-전북지역 무형진흥을 위한 정책 담론 모색>	14:00 판소리학회 <전북의 판소리>	14:00 한국민요학회 <전북의 민요 연구의 현황과 미래>	14:00 무형문화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힘, 미래와 세계로>

※ 소리썸머나잇 : 3개 공연을 1만원으로 관람

※ 야외공연은 현장 운영 상황에 따라 공연시간 및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TIME TABLE :

Sori Arts Center of Jeonbuk State

Date/Venue	8/14(Wed)	8/15(Thu)	8/16(Fri)	8/17(Sat)	8/18(Sun)
Moak Hall	19:30 Opening Concert <Japsaek X>	14:00 Opening Concert <Japsaek X> ※ Conversations with Audiences (After the Performance)	19:00 Jeonju Int'l Sori Festival X Jeonbuk CBS <Chung Kyung-hwa & Lim Dong Hyeok Duo Recital>		18:00 Closing Concert <Cho Sanghyeon & Shin Yeonghee's BigShow>
Yeonji Hall		15:00/19:30 Musical Theatre <Jeokro-A Song of Dewdrops>		15:00 Honam Opera Company <Concert Opera -Green Bean>	15:00 Sejong Soloists <Violin Extravaganza>
Myeongin Hall	14:00 Five Pansori Stories - Masters of Our Era - Lee Jaram - Jeokbyeok-ga>	14:00 Five Pansori Stories - Treasure-master of the Year - Kim Yeongja - Simcheong-ga>	14:00 Five Pansori Stories - Masters of Our Era - Wang Giseok - Sugung-ga>	14:00 Five Pansori Stories - Rising Stars - Park Gabin - Chunhyang-ga>	14:00 Five Pansori Stories - Masters of Our Era - Chae Sujong - Heungbo-ga>
			20:00 Sanjo Night <Ji Seongja & Jeong Hoecheon>		
	Sori Summer Night				
Outdoor Theater	19:00 Choori Band 20:00 [Ireland X Italy] TarantaCeltica 21:00 [Poland Focus] VO&OSI X Chae Suhyeon	19:00 GUGAK_E_SANG 20:00 Kang Eun-il Haegeum Plus 21:00 Glen Check/ Tiger Disco	19:00 Sam San 20:00 [Poland Focus] Piotr Damasiewicz - 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 21:30 WindyCity X Epaksa	19:00 Sori Frontier X The Birth of Sori 2 20:30 [Netherlands & Indonesia] Nusanantara Beat 21:30 Danny Kook & Yunsung Cho Trio	
	18:30 Pungmulgut <Iri Nongak>	18:30 Pungmulgut <Gochang Nongak>	18:00 Pungmulgut Jeonju Gijeopnori X Takebe Shishimai of Ishikawa Prefecture, Japan	18:00 Pungmulgut <Gangneung Nongak>	18:00 [Netherlands & Indonesia] Nusanantara Beat
Moak Plaza/ Nori- madang			19:00 [Malaysia] Istana Budaya Traditional Music Ensemble	19:00 [Viet Nam] Tu Quy	19:30 Pungmulgut <Jinan Jungpyeong Gut>
	20:00 Norimadang Project NALDA X The Greatest Masque <You and I Ninano>	20:00 Norimadang Project NALDA X The Greatest Masque <You and I Ninano>	20:10 [Ireland X Italy] TarantaCeltica	20:10 [Thailand] Folktronica <Nisatiwa>	
	Sori Festival for Children				
Exhibition hall	10:00 <An Elderly Man Playing Pipe with his Handcart> 12:00 Male Instrumenty - Experience of Small Instruments 14:00 <An Elderly Man Playing Pipe with his Handcart> 16:00 Male Instrumenty - Making one's Own Instrument	10:00 <An Elderly Man Playing Pipe with his Handcart> 12:00 Male Instrumenty - Experience of Small Instruments 14:00 <An Elderly Man Playing Pipe with his Handcart> 16:00 Male Instrumenty - Making one's Own Instrument	10:00 <An Elderly Man Playing Pipe with his Handcart> 12:00 Male Instrumenty - Experience of Small Instruments 14:00 <An Elderly Man Playing Pipe with his Handcart> 16:00 Male Instrumenty - Making one's Own Instrument	10:30 Unpredictable Circus <Tree, Trees, Tres> 11:30 [Czech] Objet Theater <Little Visitor> 13:30 Journey of World Music <Ireland X Italy> 16:00 Unpredictable Circus <Tree, Trees, Tres> 17:00 [Czech] Objet Theater <Little Visitor>	10:30 Unpredictable Circus <Tree, Trees, Tres> 11:30 [Czech] Objet Theater <Little Visitor> 13:30 Journey of World Music <Poland> 16:00 Unpredictable Circus <Tree, Trees, Tres> 17:00 [Czech] Objet Theater <Little Visitor>
Conference room, Exhibition hall 1F	14:00 Korean Society for Pungmulgut <Nongak of Jeonbuk - Discourse and Reality of Nongak's Transmission>	14:00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Dance of Jeonbuk - Seeking Policy Discourse to Promote Dances of Jeonbuk Province>	14:00 Society for Pansori <Pansori of Jeonbuk State>	14:00 Society of Korean Folk Songs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Folk Song Research in Jeonbuk Region>	14:00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Studies <Power of Jeonbuk Intangible Heritages toward the Future and the World>

- 태조로 Taejo-ro
- 은행나무길 Eunhaeng-ro
- 전라감영로 Jeollagameyeong-ro
- 팔달로 Paldal-ro
- 풍남문길 Pungnam-gil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 외부장소

일자/장소	8/14(Wed)	8/15(Thu)	8/16(Fri)	8/17(Sat)	8/18(Sun)
전주 한옥마을 전라감영		10:30 전주의 아침 <리코더와 정가가 들려주는 노래>	10:30 전주의 아침 <랜디 레인- 루쉬&메이 한의 월드뮤직>	10:30 전주의 아침 <시대가 전하는 춤 이야기>	15:00 [일본] 해설이 있는 일본 사자춤 (이시가와현 타케베 시시마이)
외부장소		17:00 익산 나바위성당 [폴란드 포커스] 볼로시 X 채수현		19:00 전주경기전 K-Pop 플레이그라운드	

2024 TIME TABLE : Outside Venue

일자/장소	8/14(Wed)	8/15(Thu)	8/16(Fri)	8/17(Sat)	8/18(Sun)
Jeolla Gamyeong		10:30 A Morning of Jeonju <Songs from Jeongga Singing with a Recorder>	10:30 A Morning of Jeonju <Randy Raine- Reusch and Mei Han's World Music>	10:30 A Morning of Jeonju <Story of Dance from History>	15:00 [Japan] Lion Dance with Commentary (Takebe Shishimai of Ishikawa Prefecture)
Outside Venue		17:00 Nabawi Cathedral [Poland Focus] VOŁOSI X Chae Suhyeon		19:00 Jeonju Gyeonggijeon K-POP Playground	

익산 나바위성당
Outside Venue
Nabawi Cathedral

이 건물은 서구식 성당 건축양식과 우리나라 건축양식을 잘 절충시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초기 성당 건물이다. 1916~1917년까지 흙벽을 벽돌조로 바꾸고 고딕식 벽돌조 종각을 증축하였다. 한국문화의 특성에 맞게 한옥 목조 건물에 기와를 얹은 나바위성당 건물은 특히 회랑이 있어서 한국적인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티켓 안내

티켓 구입 온라인 예매

현장 매표소 운영

구분	위치	운영시간
종합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1층 안내데스크	09:00~21:00
연지홀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1층 안내데스크	
명인홀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 1층 안내데스크	공연 시작 2시간 전
야외공연장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앞 간이매표소	
전시장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2층 간이매표소	09:30 ~ 18:00

입장 및 공연 관람 유의사항

- 유료공연 사전예매 관객분들은 공연 당일,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해당 공연장 매표소에서 티켓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시장 공연 최초 입장시 경우 공연 시작 30분 전)
- 티켓 수령 시 예매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일일권으로 운영되는 야외공연장 공연 및 전시장 일부 공연의 티켓은 팔찌 형태로 제공됩니다.

티켓할인 안내

20%	JB카드(전북은행)(1인 4매), NH농협카드(농협은행)(1인 4매), 초·중·고 학생(본인 1매), 전북특별자치도민(본인 1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숙박(1인 2매)
30%	단체할인(20명 이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료회원(1인 4매), 전북투어패스카드(1인 1매), 예술인 패스(본인 1매)
50%	문화누리카드(1인 4매), 65세 이상 성인(본인 1매), 국가유공자(1인 2매), 장애인(1인 2매)

- 모든 할인은 한 가지만 적용 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공연 당일 티켓 수령 시 증빙 자료 지참 필수이며, 미지참시 정가 대비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민 할인’ 증빙은 거주·재학·재직·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권·명함 불가)
- 어린이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만원 정액공연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할인만 적용됩니다.

온라인 티켓 운영

구매처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 1544-1555

기간 ~ 8월 18일(일)
티켓문의 063-232-8395

Ticket Information

Ticket Purchase Online Reservation

On-site Purchase

Ticket Offices	Location	Operating hours
General Ticket Office at Moak Hall	Sori Arts Center Moak Hall, 1F, Information Desk	09:00~21:00
Yeonji Hall Ticket Office	Sori Arts Center Yeonji Hall, 1F, Information Desk	
Myeongin Hall Ticket Office	Sori Arts Center Myeongin Hall, 1F, Information Desk	2 hours before the event starts -
Outdoor Stage Ticket Office	Sori Arts Center Information Desk at the front of the Outdoor Stage	
Exhibition Hall Ticket Office	Sori Arts Center Exhibition Hall, 2F, Information Desk	09:30 ~ 18:00

Notices on Entrance and Performance-watching

- Visitors with reservation can receive ticket at the ticket office next to performance venue on the day of event since 2 hours prior to the beginning of performance.
- You must bring your ID card and show the reservation number for receiving ticket.
- Tickets are offered in the form of a wristband for day-pass holders, which allows you to enter and exit freely during the outdoor performance and parts of exhibition programs.

Discount Information

20%	JB Card Holder (Jeonbuk Bank) (Up to 4 People), NH Card (NH Nank) (Up to 4 Peopl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 (In Person), Jeonbuk State Resident (In Person), Visitors of Accommodations within Jeonbuk State (Up to 2 People)
30%	Group Discount (Over 20 People), Paid-up Member of Sori Arts Center of Jeonbuk State (up to 4 People), Jeonbuk Tour Pass Card Holder (In Person), Artist Pass Holder (In Person)
50%	Culture Nuri Card (Up to 4 People), Adult over the Age 65 (In Person), Person of National Merit (Up to 2 People), Disabled Person (Up to 2 People)

- A double discount using multiple options is unavailable.
- In case of not bringing required document, the difference should be paid.
- Proof of residency, studentship, employment or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can be substitutionally used for discount type of 'the Jeonbuk State Resident'. (Passport or business card is not acceptable.)
- In case of performance for children and experiential program, th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 discount option is not applied.
- In case of 10,000₩ performance, only the discount options for persons of national merit and for disabled persons are applied.

Online Ticket Reservation

Where to Buy
Interpark ticket.interpark.com / 1544-1555

Reservation Period ~ August 18(Sun)
For More Information 063-232-8395

포커스 2024: 로컬 폴리즘: 시선의 확장
Focus on 2024

2024년 '포커스 2024'는 소리축제가 제작을 통해 선보이는 개막공연 <잡색X>, 폐막공연 <조상현&신영희의 빅쇼>에 주목한다. 올해 소리축제의 키워드는 '로컬 폴리즘: 시선의 확장'이며, 전북예술과 예술가를 중심으로 로컬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연결하며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개막공연 <잡색X>은 전북예술의 뿌리인 '임실필봉 풍물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이미지로 현대극장 무대 위에 올리는 작품이다. 폐막공연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는 국창인 조상현, 신영희 명창을 중심으로 KBS국악관현악단(지휘:박상후), 지역의 젊은 소리꾼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 나가는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공연이 되겠다.

The "Focus 2024" section will focus on the opening concert titled "Japsaek X" and the closing performance "Cho Sanghyeon & Shin Yeonghee's BigShow" produced by the Sori Festival. Under the key theme "Local Prism: Exlarging Perspectives," the festival aims to create newly-extended connections by looking at local arts and artists of Jeonbuk area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Japsaek X" reinterprets "Imsil Pilbong Pungmulgut," one of the roots of Jeonbuk art, and presents it on the contemporary theater stage through new imagination. The closing performance will feature masters Cho Sanghyeon and Shin Younghee with the KBS Gugak Orchestra and young local artists, presenting a meaningful record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개막공연 <잡색X>

Opening Concert
< Japsaek X >

8. 14. Wed 19:30
8. 15. Thu 14: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A 20,000



현대극장에서의 농악, 임실필봉농악의 재해석

2024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은 농악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전북 농악의 하나인 임실필봉농악을 소재로, 이를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잡색X>는 실제 임실 필봉마을에서 풍물과 함께 이동하며 만났던 여러 장소들에 주목한다. 당산나무, 우물, 부엌, 판 등 풍물굿이 벌어지는 장소들을 현대극장이라는 공간으로 가져와 연극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한다.

이방인의 시선에서 다뤄낸 풍물굿

<잡색X>는 전통적인 풍물굿 영역 밖 이방인들의 시선에서 출발한다. ‘장단 DNA : 김용배적 감각’, ‘장단의 민족 바우덕이 트랜스포머’ 등 감각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작품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온 연출가 적극이 콘셉트를 잡고, 국악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는 원일, 신원영 음악감독 등이 풍물굿의 기원에 대한 음악적 접근을 시도한다.

Nongak on the Modern Stage Form

2024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of the designation of “Nongak”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an opening performance based on Jeonbuk’s nongak. The Festival’s opening performance <Japsaek X> pays attention to the diverse place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traveling from village to perform pungmulgut rituals. The places where pungmulgut takes place, including the dangsan tree, wells, kitchens, and pan (venue of performance), are brought into the space of a contemporary theater and reconstructed in a theatrical way.

Pungmulgut from an Outsider’s Eye

<Japsaek X> begins with the perspective of strangers outside the traditional territory of pungmulgut. The concept was articulated by director Jeokgeuk, who has communicated with audiences through sensual and experimental works, including “Jangdan DNA: Kim Yong-bae's Sensation” and “Ethnos of Jangdan: Baudeogi Transformer.” Music directors Won Il and Shin Wonyoung, who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contemporizing traditional music, will suggest a musical approach to the origins of pungmulgut.



민중의 음악, 잡색들의 커뮤니티

농악은 얼굴도 이름도 없는 민중들의 음악이다. 이 종합 연희 풍물굿 속에는 음악을 담당하는 앞치배에 비해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뒷치배, 즉 잡색이 존재한다. '농악판의 배우'라고 불리는 풍물 속 잡색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비주류인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 더 나아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로 확장된다. 공동체 농악을 구사해온 임실필봉농악이 지금 여기 '관객들의 농악'의 실체로서 함께한다.

Music of the people, Community of Japsaek

Nongak is the music of and for the faceless and nameless people. In this tradition of synthetic performance, there are performers called dwichibae (lit. “back” percussionists), or japsaek, who play a supporting role alongside abchibae (“front” percussionists) who perform musical functions. Called the “actors in nongak performances,” japsaek are marginalized people who have become nothing, and the same time, who have infinite possibilities of becoming anything, which can be extended to ordinary citizens living their present and to the entire audience watching the performance. Imsil Pilbong Nongak, who has been practicing community-based nongak, performs on this stage of “nongak by and for the audience of the here-and-now.”

관객과의 대화

- 일시 2024. 8. 15(목) 공연 종료 직후(약 30분 소요 예정)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무대
- 참석 출연진, 연출가, 음악감독 *변경될 수 있음

※ Conversations with Audiences
(After the Performance, Approximately 30 Minutes on 15th Aug)

출연진

양진성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커뮤니티잡색

연주 원일(작곡·지휘), 신원영(타악·사운드),

김성근(아쟁, 태평소, 구름),

김예림(거문고), 박소민(해금),

조요인(가야금)

제작진

총감독 김희선

컨셉·연출·무대미술 적극

음악감독 원일, 신원영

무대미술·제작감독 김건태

오브제 디자인 윤재희

조명디자인 박현정

영상·퍼포머 림벌트

안무 박유라

그래픽 디자인 박찬신

조연출 정찬동

무대기술·무대총괄 박기남

무대감독 김응안

음향감독 오영훈

조명 오퍼레이터 김보경

영상 오퍼레이터 류세일

무대제작 중간공간연구소(민주영, 장기욱)

제작PD 이은주

폐막공연

< 조상현&신영희의 빅쇼 >

Closing Concert

< Cho Sanghyeon & Shin Yeonghee's BigShow >

8. 18. Sun 18: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A 20,000



©(주)라운드테이블이미지컴퍼니



조상현·신영희 두 명창의 소리길 삶 오늘 그리고 또 다른 시작

1995년 8월, KBS 음악 프로그램 ‘KBS빅쇼’에 조상현·신영희 명창이 ‘조상현·신영희 소리로 한세상’이라는 타이틀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당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대중음악 중심의 음악쇼였던만큼 두 국악인의 출연은 당시 두 분의 인기와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두 명창이 다시 한번 한 무대에 오른다. 두 명창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온 소리꾼으로서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 이 감개무량한 무대는 오직 소리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다.

다 같이 넘어가자! 다음 판이 있는 저 소리 고개를 너머로!

2024 소리축제의 폐막공연 연출을 맡은 이왕수 연출은 조상현·신영희 명창의 소리를 통해 국창들의 소리길 인생사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국악의 흐름을 담아내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두 국창과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력 있는 소리꾼 10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예술의 과거와 오늘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 소리가 내일로 넘어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이번 공연을 위해 KBS국악관현악단의 박상후 지휘자가 지휘 및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며, KBS국악관현악단의 수준 높은 연주로 사운드의 풍성함과 입체감을 더해준다.

Two Pansori Masters' Lives of Sound-journey Today, and a New Beginning

In August 1995, the TV program “KBS BigShow” featured Master Cho Sanghyeon and Shin Yeonghee under the title of “Cho Sanghyeon and Shin Yeonghee: The World with the Sound.” Their appearance at this concert show, which focused on popular music, documents how much they were widely-loved and respected. This year, about 30 years later, the two masters once again come to the stage together. It will be a privilege only for the visitors of the Sori Festival to witness this moving performance that reflects the lives of two great singers.

Let's Move up toward the Next - Beyond the Hill of Sound!

Lee Wangsoo, the director of the closing concert of the 2024 Sori Festival, wants to highlight the life-story of the two great musicians of Cho Sanghyeon and Shin Yeonghee through their sounds. Also, he wants to capture the flow of traditional music within the flow of Korean history. In the performance, ten talented singers from the Jeonbuk area will join the two masters to depict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sounds into the future,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artistic past and present. Park Sanghoo, conductor of the KBS Traditional Music Orchestra, serves as conductor and musical director for the performance. The high quality performance of KBS Traditional Music Orchestra will add richness and depth of sound.

조상현·신영희 두 명창과 함께하는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공연!

한국음악사는 물론 우리 소리의 변천 과정과 한국음악의 대중화까지 그 흔적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이 시대, 소리축제가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국창들이 힘을 실어 그들이 치열하게 지켜온 우리의 것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특별한 공연이 되겠다.

Closing Concert of the 2024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ith Master Cho Sanghyeon and Shin Yeonghee!

By tracing the history of Korean music as well as the process of traditional sounds and their popularization, the performance aims to revisit the meanings of the Sori Festival at this moment. The concert will symbolize the handing down of what master musicians have intensely preserved to the future generations.



©(주)케이온드테이비 이미지 컴퍼니

출연진
명창 **조상현, 신영희**
소리 **강길원, 이은비, 박현영,**
김은석, 김정훈, 김유빈, 소장,
이정인, 유지민, 이효원
고수 **임영일, 김태영**
연주 **KBS국악관현악단**
(지휘: 박상후)

제작진
총감독 **김희선**
연출 **이왕수**
극본 **안선우**
음악감독 **박상후**
사운드디자인 **최희영**
작·편곡 **배주희**
안무 **오대원**
조연출 **박소현**

무대기술·무대총괄 **박기남**
무대감독 **김용완**
음향 **BLcompany**
조명감독 **송인훈**
영상제작 **오재우**
영상중계 **강성범**
제작PD **이은주**



전통의 율형을 오롯이 담아낸 섹션 '전통: 오래된 걸'은 올해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소리축제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바탕>은 올해의 국창, 시대의 명창, 라이징 스타로 나누어 다양한 세대가 우리 소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춘예찬 젊은판소리>는 젊은 소리꾼들의 개성과 열정을 볼 수 있는 무대다. 지성자, 정회천 두 명인의 서로 다른 가야금 산조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산조의 밤>도 관심있게 지켜봐주길 바란다. 소리축제가 열리는 닷새간 화합과 단결의 상징이자 신명을 끌어내는 '풍물굿 열전'을 통해 전북의 다양한 판굿 무대도 즐길 수 있다.

The section of "Tradition: Long-standing Textures" is designed for all generations to be able to enjoy the originality of traditional arts. The festival's signature performance, "Five Pansori Stories," is divided into the three subsections including "Treasure-master of the Year," "Masters of our Era," and "Rising Stars" through which different generations can enjoy traditional sounds in a variety of ways. The section "Ode to Youth - Young Pansori" is a stage where the audience can see the uniqueness and passion of young artists who were selected through preliminary competition. In addition, at the special section of "The Sanjo Night," two gayageum masters, Ji Seongja and Jeong Hoecheon, will present different styles of gayageum sanjo on a single stage.

[판소리 다섯바탕-시대의 명창]

적벽가-이자람

[Five Pansori Stories -
Masters of Our Era]

Jeokbbyeok-ga - Lee Jaram

8. 14. Wed 14: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이자람의 동편제 박봉술 바디 적벽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운산 송순섭의 제자 이자람이 펼치는 이번 공연은 ‘동편제 박봉술 바디 적벽가’의 주요 대목을 중심으로 ‘도원결의’부터 ‘새타령’ 대목까지 선보인다. 이자람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춘향가 이수자로, 송순섭 명창으로부터 15년간 동편제 적벽가와 흥보가 전판을 사사했다.

송순섭의 동편제 소리는 송흥록 명창의 음악을 표준으로 삼아 전승되어 온 소리로, 송광록, 송우룡, 박만순 명창이 이어받았으며, 송우룡과 박만순의 소리는 송만갑 명창이 이어받았다. 송만갑의 수제자인 박봉술 명창은 1973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박봉술의 가장 오랜 제자였던 송순섭은 2002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다. 고법에는 송순섭 명창의 지정 고수로 오랜 시간 동편제 적벽가의 고법을 지켜온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박근영 명고가 무대에 함께 오른다.

Lee Jaram's Dongpyeon-je Jeokbyeok-ga of Park Bongsul's Style

Lee Jaram, a disciple of Unsan Song Sunseop (holder of Pansori,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perform in the “Five Pansori Stories” Program at 2024 Sori Festival. She will perform “Dongpyeon-je (lit. singing-style developed in the eastern part from Seomjin River) Jeokbyeok-ga of Park Bongsul’s Style,” from the part of “Oath of the Peach Garden” to “Taryeong for Birds.” Lee Jaram is a certificated trainee of Jeokbyeok-ga and Chunhyang-ga, and has studied Dongpyeon-je Jeokbyeok-ga and Heungbo-ga from master Song Sunseop for 15 years.

Master Park Geunyeong, the holder of Daeje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nsori gobeop (percussion)) who has long been performing Dongpyeon-je Jeokbyeok-ga, will join in the festival stage.

* 해설 유명대 *



이자람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 판소리 다섯바탕 완창(1996~2015)
- 제15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부 장원
- 제30회 전주대사습놀이 일반부 장원
- 2023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자주연상 <서편제>
- 2017 사야국악상
- 2016 KBS국악대상
- 2015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 2014 동아연극상 새개념 연극상 <추물/살인>
- 2014 더 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 <서편제>
- <노인과 바다>, <이방인의 노래>, <억척가>, <사천가> 작/창작/소리 및 <서편제>, <오셀로>, <Oil> 출연



고수 박근영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 제12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장원(대통령상)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외래교수
(사)대한민국전통문화예술원 이사장

[판소리 다섯바탕-올해의 국창]

심청가-김영자

[Five Pansori Stories - Treasure-master of the Year]

Simcheong-ga - Kim Yeongja

8. 15. Thu 14: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김영자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의 시조인 박유전으로부터 전승, 전남 보성에 뿌리를 내리며 보성의 동편제 소리와 어우러진 독특한 창제로 거듭난 소리로 박유전-정재근-정응민-성우향-김영자로 이어졌다. 김영자 명창은 탁하지만 고운 성음이라 불리는 수리성의 목구성과 무대를 장악하는 폭발적인 성량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오랜 창극 활동으로 다져진 연기력까지 갖추고 있어 온전히 청중을 휘어잡는 이 시대 최고의 명창으로 꼽힌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서진희 명창은 본디 동초제 판소리를 하였으나 2013년 김영자 명창의 아들 김도현과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수궁가와 심청가를 사사받았다. 2023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시아버지(김일구 명창),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김도현)에 이어 장원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번 공연에는 명고 이태백과 김태영이 복을 잡는다.

Master Kim Yeongja's Gangsan-ge
Simcheong-ga

Master Kim Yeongja has her own suriseong voice, which is said to be thick but fine, and her explosive voice, which dominates the whole stage. In addition, her acting skills developed through her changgeuk (pansori-based modern theatre) experience make her one of the best masters who completely captivates the audience. She was recognized as the holder of Pansori Simcheongga,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20.

Seo Jinhee, who performs on stage with the master, originally studied dongcho-je style pansori, but after marrying Kim Dohyeon, Kim Yeongja's son, she studied sugung-ga and simcheong-ga of the master's style. In this festival performance, Masters Lee Taebaek and Kim Taeyeong will perform as percussionists.

해설 최동현



김영자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 경주신라문화제 판소리 소녀부 장원 국무총리상
- 경주신라문화제 전국 판소리 명창대회 장원 국무총리상
- 남원 전국 명창대회 판소리 대상 국무총리상
-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 대통령상
- KBS국악대상
- 서울정도 600년 서울 시민상 서울시장상
- 제29회 동리대상
- 판소리 다섯바탕 완창 발표회 100여 회
- 창극 주연 및 작창 100여 회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단장 역임
- 현) 전문예술법인 온고을소리청 이사장



서진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전문사 졸업
- 국립국악원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성악 부문 금상
- KBS국악대경연 성악 부문 장원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
- 현)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고수 이태백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 국가무형유산 진도씻김굿 이수자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국악경연대회 기악부 장원
-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대통령상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역임
- 현) 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고수 김태영

- 국가무형유산 진도씻김굿 이수자
-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박사수료
- 제37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
-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대통령상
- 현) (사)한국국악협회 고수분과 부위원장
-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 출강 신청악회 대표

[판소리 다섯바탕-시대의 명창]

수궁가-왕기석

[Five Pansori Stories -
Masters of Our Era]

Sugung-ga - Wang Giseok

8. 16. Fri 14: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왕기석 명창의 미산제 수궁가

18세부터 본격적인 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왕기석 명창은 남해성 명창뿐 아니라, 정권진, 박봉술, 정광수, 성우향, 오정숙 등 당대 내로라하는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배우며 자신을 갈고닦았으며, 1983년 국립창극단에 입단, 30년간의 국립창극단 활동을 통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4 소리축제 무대에서 선보일 소리는 ‘미산제 수궁가’다.

여러 유파 가운데 송흥록-송광록-송우룡-유성준-정광수-박초월로 이어진 미산제는 미산 박초월 명창이 자신의 더늠과 색을 넣어 재해석한 소리다. 동편제 계보지만 계면조의 창법, 애원조의 성음 등 서편제의 특징이 조화를 이루며, 상·하청을 넘나드는 음과 화려한 시김새가 돋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왕기석 명창의 힘 있고 단단한 소리와 창극 배우로서 익힌 연극적 표현력이 어우러진 해학과 풍자의 묘미 가득한 ‘수궁가’를 만날 수 있다. 고수는 명고 조용안과 이상호가 맡아 소리의 생동감을 더해준다.

Master Wang Giseok's Misan-je Sugung-ga

Master Wang Giseok will perform “Misan-je Sugung-ga” on the festival stage. Misan-je style is Misan Park Chowol’s reinterpretation of what she inherited from the tradition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Song Heungrok to Song Gwangrok, Song Wuryong, Yu Seongjun, Jeong Gwangsu, and Park Chowol. Although it belongs to the lineage of dongpyeon-je (i.e., “eastern” style), it also has some characteristics of seopyeon-je (“western” style), including its unique gyemyeon-jo (a kind of minor scale) singing style and its pathetic voice. Its wide pitch-range and splendid ornaments also attract audiences.

The audience will meet his “Sugung-ga” full of humor and satire, expressed through his powerful and solid voice, as well as his theatrical expressiveness, constructed through his changgeuk experience. Master percussionists Cho Yongan and Lee Sangho will add to the vibrancy of the performance.

해설 김혜정



왕기석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 국립창극단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주역단원 역임
- 정음시립국악단 단장 역임
- 제7대 국립민속국악원 원장 역임
- 제31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
- 2013 MBC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시즌2’ 우승
- 2014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및 종합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대통령표창)
- 현) (사)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연합회 이사장



고수 조용안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지도위원 역임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역임
-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술감독 역임
- 현) 전라남도립국악원 예술감독



고수 이상호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 국립창극단 단원역임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단원역임
- 현)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 고법반 교수

[판소리 다섯바탕-라이징 스타]

춘향가-박가빈

[Five Pansori Stories - Rising Stars]

Chunhyang-ga - Park Gabin

8. 17. Sat 14: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박가빈의 조상헌 바디 김세종제 춘향가

판소리 사설집 작업을 통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력파 소리꾼 박가빈! 2024 소리축제 무대에서는 조상헌 바디 ‘김세종제 춘향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의 춘향가 계보는 김세종-정응민-조상헌-염경애-박가빈으로 전승되어 온 소리다. 김세종의 동편제 춘향가를 중심으로, 박유전의 서편제 춘향가가 수용된 독특한 소리이며, 동편제의 웅장함과 서편제의 애잔함이 어우러진 소리다. 이번 무대는 ‘기산영수’부터 ‘더질더질’ 대목 안에서 3부로 나누어 소리를 들려준다. 고수에는 박종호와 박종훈이 맡아 소리의 신명을 더한다.

Park Gabin's Cho Sanghyeon-badi, Kim Sejong-je Chunhyang-ga

On the 2024 Sori Festival stage, she will perform “Kim Sejong-je Chunhyang-ga.” This style of Chunhyang-ga, which has been passed down from Kim Sejong to Jung Eungmin, Cho Sanghyeon, Yeom Gyeongae, and Park Gabin, is a unique style in which Park Yujeon’s seopyeon-je (“western” from Seomjin River) style is incorporated into Kim Sejong’s dongpyeon-je (“eastern”) one. Thus, this style combines dongpyeon-je’s grandiosity and seopyeon-je’s sorrowfulness. The festival stage will be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and will include several songs from “Gisanyongsu,” the first part, to “Deojildeojil,” the last part of Chyunhang-ga. Park Jongho and Park Jonghoon will play buk percussion to add excitement to the stage.

해설 최혜진



박가빈

- 이화여자대학교 학사-석사-음악박사
- 제19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 일반부 장원 (문화체육부장관상)
- 제26회 구례 송만갑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 판소리 사설집 시리즈 출간
- 판소리 사설집1 조상헌창본 강산제 심청가
- 판소리 사설집2 조상헌창본 김세종제 춘향가
- 판소리 사설집3 한농선창본 박녹주제 흥보가
- 판소리 사설집4 윤진철창본 강산제 적벽가
- 판소리 사설집5 최란수창본 박초월제 수궁가
- 현)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강사

고수 박종호

- 제36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수부 대통령상
- 현) 전통연희단 유량 대표



고수 박종훈

- 제39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수부 대통령상
- 현) 한국전통예술원 춤과 음악 대표



[판소리 다섯바탕-시대의 명창]

흥보가-채수정

[Five Pansori Stories -
Masters of Our Era]

Heungbo-ga - Chae Sujeong

8. 18. Sun 14: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채수정 명창의 박록주제 흥보가

‘박록주제 흥보가’는 섬진강 동쪽 지역에서 발달했으며 동편제의 명맥을 이어왔다. 송만갑-김정문으로 계승되어 온 소리를 박록주 명창이 새롭게 다듬었으며, 사설을 간결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장단의 변화를 통해 골계적 대목의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 채수정 명창이 스승에게 배운 박록주제 박송희류 ‘흥보가’는 해학미와 비장미가 두루 갖추어져 있으며, '놀보 박 타는 대목'이 담겨 있어 착한 흥보와 욕심 많은 놀보를 비교해 보는 묘미가 있다.

채수정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흥보가’ 예능보유자인 박송희 명창을 30여 년간 스승으로 모시며 흥보가와 적벽가, 춘향가, 숙영낭자가 등을 두루 공부했다. 이번 공연에는 명고 박근영이 함께 장단을 맞춘다.

Master Chae Sujeong's Park Rokju-je Heungbo-ga

“Park Rokju-je Heungbo-ga,” developed in the east of Seomjin River, carries on the tradition of dongpyeon-je pansori. Park Rokju-je Park Songhee-ryu Heungbo-ga that master Chae Sujeong studied has both humorous and serious aspects, and includes the part of “Nolbo’s halving of a gourd,” which make the audience compare the greedy Nolbo and the good-hearted Heungbo.

Master Chae Sujeong, the certified trainee of Pansori Heungbo-ga, has studied Heungbo-ga, Chunhyang-ga, Sugyeongnangja-ga, and has been studying for around 30 years with Master Park Songhee, the holder of Heungbo-ga. She will be accompanied by master percussionist Park Geunyeong in this performance.

* 해설 정병헌 *



채수정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 2022년 2022전통예술음악발전공로대상 2022 K-STAR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언론인연합 협의회)
- 2014 대한민국 출판문화예술대상
- 제19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 2009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판소리학회 부회장
(사)세계판소리협회 이사장
(사)한국정악원 이사



교수 박근영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 제12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장원(대통령상)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외래교수
(사)대한민국전통문화예술원 이사장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Ode to Youth - Young Pansori

8. 15. Thu -
8. 16. Fri

전라감영

Jeolla Gamyo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개성있는 젊은 소리꾼들의 판소리 무대

개성 넘치는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인 ‘청춘예찬 젊은판소리’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한옥의 고즈넉함과 멋스러움이 돋보이는 공간 전라감영에서 펼쳐진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젊은 소리꾼들의 열정과 패기 넘치는 무대를 통해 판소리의 고유한 멋과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

Distinctive Young Artists' Pansori Stages

“Ode to Youth - Young Pansori,” stages for young artists with uniqueness, is held at the historic site of Jeollagamyong (the local government office of the Joseon Dynasty era) where a tranquil and stylish atmosphere can be experienced. Let us feel the unique aesthetic of pansori through the passionate performances of talented young artists.

8. 15. Thu

해설 신은주

8. 16. Fri

해설 성기련

김송지의 강산제 수궁가

8. 15. Thu 15:00

‘강산제 판소리’는 대한제국기 고종 연간에 서편제의 명창 박유전이 동편제의 특징인 웅장한 멋과 중고제의 분명한 성조를 접목시켜 창시한 판소리 유파다. 이 유파의 소리는 맺고 끊음이 분명하며, 절제미와 음악성이 우아하고 기품있는 소리로 유명하다. 사실과 음악 간의 이면을 풍부하게 그려내는 소리로도 꼽힌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리꾼 김송지가 판소리 수궁가의 ‘초입 대목’부터 ‘호랑이 내려오는 대목’까지를 들려준다.



김송지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예술사 졸업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판소리 석사 졸업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전수자
- 2024 국립국악원 청년교육단원
- 제15회 박동진 명창·명고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고수 최광동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예술사 졸업
- 제10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은상
- 제10회 한국의 장단 찾기 한마당 일반부 금상

조정규의 동초제 심청가

8. 15. Thu 16:20

‘동초제 심청가’는 동초(東超) 김연수 명창에서 시작해 오정숙, 이일주 명창으로 이어지고 김연 명창에게 계승되었다. 김연수 명창이 동, 서편의 소리를 망라해 장점을 모으고 짜임새 있게 정립한 판소리로, 심청의 효를 보편적 가치로 승화하면서도 사실의 격을 높여 대중의 취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소리꾼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소리축제 무대에서는 소리꾼 조정규가 ‘심봉사 망사대 대목’부터 ‘탄식하는 대목’까지를 들려준다.



조정규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졸업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2023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종합대상(국무총리상)
- 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제24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 2019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 2018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판소리 금상
- 2014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판소리 장원
- 2008 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어린이 판소리 장원
- 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전수장학생 국립국악중학교 강사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영재교육원 판소리 지도 강사



고수 양성태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및 전수사 수료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제23회 익산전국판소리·고법 경연대회 고법 일반부 대상

강현영의 김세종제 춘향가

8. 15. Thu 17:40

동편제에 속하는 ‘김세종제 춘향가’는 김세종 명창에서 김찬업, 정응민 명창으로 이어져 전남 보성에서 자리를 잡았고, 다시 정권진, 성우향, 조상현 명창 등으로 이어졌다. 동편제의 한 가락으로 주로 고창의 신재효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승 집단이 사실과 음악의 내용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수정하여 이어온 소리다. 양반적 취향이 많이 가미되어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 우아하고 섬세하게 변화된 모습이 특징이다. 소리꾼 강현영의 소리로 ‘이별가 와상우에 대목’부터 ‘갈까부다 대목’까지를 감상할 수 있다.



강현영

-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2023 영암 달빛뮤직페스티벌 동상 수상
- 제24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제21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 201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작 淸alive 주연
- 현) 에헤라 대표



고수 이창원

-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이수자
- (사)한국국악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회원
- 현) 율마 대표

이정인의 동초제 홍보가

8. 16. Fri 15:00

‘동초제 홍보가’는 동초 김연수 명창에 이어 오정숙, 이일주 명창을 거쳐 이어진 소리다. 동편제 계열의 홍보가처럼 대부분 놀보가 ‘제비 몰리나가는 대목’에서 끝이 나는 소리와 달리 후반부에 상여꾼, 초라니패, 사당패, 각설이패 등이 등장해 권선징악을 펼치는 내용이 해학적으로 첨가되어 있다. 극적인 짜임새가 뛰어나며 사실이 정확하다. 또한, 너름새가 정교하며 부침새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홍보 비는 대목’부터 ‘둘째 박타는 대목’까지를 소리꾼 이정인의 소리로 만날 수 있다.



이정인

-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석사 수료
- 2023 전주대사습청 상설마당창극 ‘Hi, 심생원’ 출연_심향후
-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20주년 특집 개막공연 ‘Re-Origin’ 출연
- 현)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상임단원



고수 박추우

- 제41회 전국고수대회 명고부 대회
- 현)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상임단원

박수범의 박봉술제 김일구 바디 적벽가

8. 16. Fri 16:20

‘박봉술제 김일구 바디 적벽가’는 동편 계열에 속하는 송만갑 명창의 바디를 이은 것으로 송만갑-박봉래-박봉술-김일구 명창으로 전승된 소리다.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조와 섬세하고 화려한 장단, 맺고 끊음이 간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적벽가의 특성상 우직하고 단단한 성음으로 구사하는 우조 소리의 다양한 선율 구성과 시김새가 매력적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천여 척 대목’부터 ‘조자룡 활쏘는 대목’까지를 만날 수 있다.



박수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일반부 장원
- 2013 대한민국 인재상
- 전) 밴드 이날치 멤버



고수 이명옥

-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졸업
- 제23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 판소리 부문 일반부 우수상
- 제23회 임방울 국제 판소리부문 학생부 금상
- 제17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 고법부문 학생부 대상

문의전화 070-8691-2611



정읍 No.1 복합문화공간 이오일스페이스

지금 정읍역에서 171번 버스 타고 15분 바로 가기!



이오일
SPACE

[산조의 밤]

지성자, 정회천

[Sanjo Night]

Ji Seongja & Jeong Hoecheon

8. 16. Fri 20: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30,000

두 가야금 명인이 전하는 산조의 진수 깊이 있는 산조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통해서 지성자 명인이 연주하는 ‘성금연류’와 정회천 명인이 연주하는 ‘함동정월류’를 동시에 듣는다는 건, 가야금 산조 연주 史에 있어서 매우 특이하게 기록될 역사적 순간이 될 것 같다. 만약에 황병기 명인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지성자 명인의 성금연류, 정회천 명인의 함동정월류를 듣는다는 건, 산조의 연주사에 있어서 ‘꽃중의 꽃’, 그 중 ‘가장 아름다운 두 개의 서로 다른 꽃’을 한 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행운 중의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다.”

글_윤중강(국악평론가)

The essential of Sanjo Conveyed by Two Gayageum Masters Let us Dive into the World of Sanjo Deeply!

“Sanjo Night,”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s branded performance-series, provides a series of stages in which the musical value of sanjo with its unique artistry can be felt. “To hear “Seong Geumyeon-style” sanjo played by Master Ji Seongja and “Ham Dongjeongweol-style” sanjo played by Master Jeong Hoecheon on a single stage will be a special historical moment in the history of gayageum sanjo performance. If Master Hwang Byungki were alive, I think, he would say, “It is the luckiest of lucks to appreciate and compare the “two most beautiful flowers,” that is, Ji Seongja’s Seong Geumyeon-style sanjo and Jeong Hoecheon’s Ham Dongjeongweol-style sanjo.””

Written by Yoon Junggang,
Traditional Music Critic

해설 윤중강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힘차고 경건한 분위기의 다스름으로 시작되며 조의 변화는 다채롭고 뚜렷하다. 선율의 구성은 가락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여 농현의 깊이와 연주자의 예술성에 따라 덧붙이거나 혹은 떨어내거나 하는 즉흥성이 돋보인다. 박과 박 사이는 현이 가지고 있는 타악성의 특징을 살려 가락의 짜임에 긴장감을 줌으로써 섬세하고 화려하며 발랄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계면조를 중심으로 짜여진 애절한 멋의 선율과 굵거리장단 악장의 경쾌한 경드름의 선율은 성금연 산조의 꽃이 되어 감칠맛을 더해준다.



가야금 지성자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 동경 한국 YMCA국제문화부 지도위원 역임
-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등 국내 대학교 출강 역임
- 현) 성금연가락보존회 대표



고수 윤재영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이수자
- 현) 장덕화고법보존회 회장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최옥산제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의 진양조에는 우조, 편조, 계면조 외에 다른 류파의 가야금 산조에서 보기 힘든 봉황조 가락이 특이하다. 중모리의 경드름 가락과 우조로만 구성된 중중모리 가락이 이채롭다. 이 산조 가락의 특징을 가장 잘 표출하고 있는 늦은자진모리는 중중모리 장단에서 자진모리 장단으로 바뀌는 연결 장단의 복합구조이다. 특히 완전4도 아래로 조바꿈 된 변음 가락과 그 가락들을 잇고 맺어주는 북 반주 가락과의 다채로운 진행이 돋보인다. 자진모리의 ‘비오는 가락’, ‘도섭 가락’, ‘말 뛰는 가락’ 등이 특이하며, 정제된 가락과 깊은 농현에 의한 성음 놀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가야금 정회천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전승교육사
- 2003 대통령 공로 표창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 역임
- 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판소리고법 연구소 대표



고수 윤중호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전수자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교수경연대회 명창부 장원
- 현) 나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풍물굿 열전]

이리농악

[Pungmulgut Fever]

Iri Nongak

8. 14. Wed 18:30

모악광장
Moak Plaza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풍물굿 열전]

고창농악

[Pungmulgut Fever]

Gochang Nongak

8. 15. Thu 18:30

모악광장
Moak Plaza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국가무형유산 이리농악

호남우도농악의 대표인 국가무형유산 ‘이리농악’은 상쇠의 부포놀이와 소고춤의 기법, 진풀이가 매우 다양하고 장구의 가락과 춤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다. 비교적 느린 가락을 많이 쓰며, 가락 하나하나가 매우 치밀하게 변주되어 다채롭다. 풍류굿, 삼채굿에서는 악절마다 맺고 푸는 리듬 기법을 쓰는 등 가락의 기교도 뛰어나다. 이리농악의 판제는 첫째마당, 둘째마당, 셋째마당과 뒷굿으로 각기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뒷굿에는 도둑잡이굿, 상쇠놀이, 설장구놀이, 상모놀이, 열두발놀이, 기놀이 등이 있다.

Iri Nongak

Iri Nongak,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1-3,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forms among Honam-udo (eastern part of Jeolla region) of nongak performances. Iri Nongak differs from other regional styles in that it includes a variety of buponori and sogo-dance techniques for Sangsoe (lead kkwaenggwari player), and that it includes highly developed jangdan (rhythmic pattern) of janggu as well as body-movement. It makes relatively frequent use of slow melody, and every melody-chunk is delicately changed into variations during the performance, making the whole performance more colorful. In pungryugut and samchaegut parts, elaborate rhythmic techniques of “fastening and releasing” are found. Iri Nongak consists of the first, second, third madang (sequential part) and dwitgut. Dwitgut (i.e., the later part of performance) includes dodukjaebi-gut (grabbing thief), sangsoenori (sangsoe’s performance), seoljanggunori (standing performance with janggu), sangmonori and yeoldubalnori (performances with sangmo hat), ginori, etc..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

‘고창농악’은 호남우도농악으로 영광, 고창(무장), 장성, 함평 지역에서 발달한 영무장(영광, 무장) 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다. 예부터 호남우도농악의 중간지역으로 ‘간이 잘 맞는다’는 정평을 얻고 있으며, 어정거리는 몸짓과 장단의 맛, 멋들어진 발놀음이 특징이다. 고창농악의 ‘판굿’은 ‘입장굿’을 시작으로 ‘오채질굿마당’, ‘오방진마당’, ‘호허굿마당’, ‘구정놀이마당’의 네 개의 마당으로 진행되며, 화려한 기량과 12잡색들의 멋들어진 놀이를 볼 수 있다. 판굿은 사람들의 공동체 신명놀이의 장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놀이판이기도 하며, 현대의 농악에서 가장 사랑받는 연행 양식 중 하나이다.

Gochang Nongak

Gochang Nongak, included in Honam-udo nongak, inherits the lineage of Yeongmujang (Yeonggwang and Mujang area) Nongak developed around the region of Yeonggwang, Gochang (Mujang), Jangseong, and Hampyeong. Due to the fact that Gochang is located at the center of Honam-udo nongak area, Gochang nongak is reputed as being “well-seasoned,” and characterized by its “dawdling” body-guesters, tasteful jangdan patterns, and fancy footwork. “Pangut” of Gochang Nongak that begins with Ipjanggut (entering/initiating performance) is followed by four subsequential sections of ochajilgutmadang, obangjinmadang, hoheogutmadang, and gujeongnorimadang in which instrumentalists’ skillfulness as well as playful movements of 12 jabsaek (acting and dancing characters) can be watched. Pangut, the closing part of festivity, offers an arena for communal excitement. It is one of the most beloved nongak forms in modern days.



[풍물굿 열전]

전주기접놀이 × 일본 이시가와현 타케베 시시마이

[Pungmulgut Fever]

Jeonju Gijeopnori × Takebe Shishimai of Ishikawa Prefecture, Korea&Japan

8. 16. Fri 18:00

모악광장
Moak Plaza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풍물굿 열전]

강릉농악

[Pungmulgut Fever]

Gangneung Nongak

8. 17. Sat 18:00

모악광장
Moak Plaza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한·일 양국의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주는 전통 민속놀이의 만남!

‘전주기접놀이’는 7월 백중에 여러 마을이 한데 모여 힘과 기예를 겨루며, 농사일의 피로를 씻고 쌓인 허물과 다툼을 풀어내는 협동의 기반을 만들어온 마을 공동체 놀이문화다. 높이 6m에 달하는 용깃발의 역동적이고 장쾌한 움직임이 매력으로, 우리 민속문화의 흥과 에너지를 한껏 즐길 수 있다. 일본의 ‘시시마이(사자춤)’는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춤이다. 타케베 시시마이는 이시가와현 노토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시시마이(사자춤)를 계승하고 있는 보존회로,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일본 이시가와현의 우호 교류 협약을 통해 성사되었다. 한·일 양국이 전통으로 이어온 민속문화의 만남을 기대해보자!

Encounter between Traditional Community-based Cultures of Korea and Japan!

“Jeonju Gijeopnori” is a community-based entertainment form performed by villages in mid-July. Each village competes in strength and skill to wash away the fatigue of agricultural labor and to resolve inter-personal and inter-village conflicts. “Shishimai (Lion Dance)” is a folk dance that has been passed down in various forms throughout Japan. The performance was organized through a friendship-exchange agreement between the Jeonbuk State and Ishikawa Prefecture. Let us look forward to the encounter between these folk cultures of Korea and Japan!

협력  일본 이시가와현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은 국가무형유산 중 유일한 강원도 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빠르고 경쾌한 가락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농사 풀이 농악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공연에 사용되는 소고, 법고, 모자는 아직도 직접 제작하여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단동고리와 삼동고리를 연기하는 옷다리 농악과 달리, 연희자들이 모여 3단으로 인간 탑을 쌓은 후 꼭대기 연희자가 12발 상모를 돌리는 장면은 옷다리 농악과는 다른 새로운 묘미를 맛볼 수 있다.

Gangneung Nongak

Gangneung Nongak is the only form of nongak from Gangwon-do Province included in the list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characterized by its fast and cheerful melody and its unique form as a performative description of agricultural process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regions. In addition, sogo and beopgo percussions as well as hats are still made by hand to preserve their originality. In Gangneung Nongak, unlike Utdari Nongak where the performers acts dandonggori and samdonggori (forms of putting younger performers on one’s shoulder), the performers together build a tri-levelled human tower and then the one standing on the top twirls a sangmo hat, providing the audiences with a differentiated point of attraction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ases.



[풍물굿 열전]
진안중평굿

[Pungmulgut Fever]
Jinan Jungpyeong Gut

8. 18. Sun 19:30
모악광장
Moak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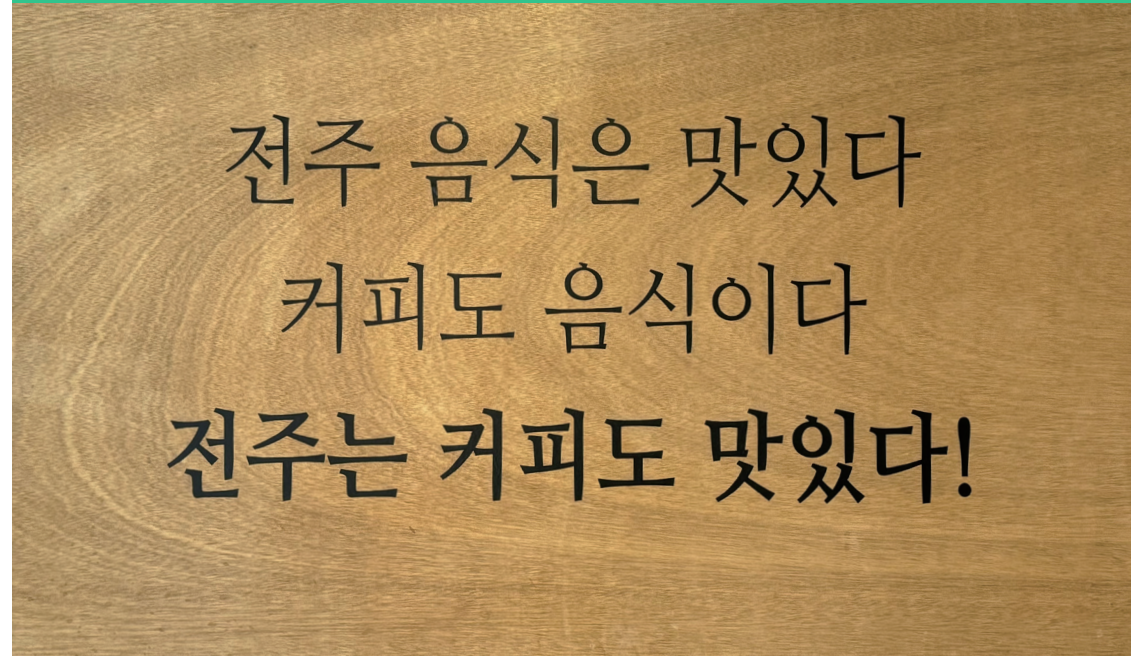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진안중평굿

2020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은 ‘진안중평굿’은 전라도 동부 산간 지역의 성수면 중평마을에서 이어져 온 굿으로, 축원성과 음악적 예술성이 뛰어나다. 굴곡 있는 산의 조화처럼 투박하면서 깊고 빠르며 가락 수가 많다. 전투적이며 힘을 바탕으로 한 굿판으로 모든 치배(잡이)가 선보이는 상모놀음의 조화는 박진감이 넘친다. ‘중평굿마당’은 세상살이처럼 일하고, 바라고, 싸우고, 나누고, 노는 ‘일과 놀이’의 공동체 어울림굿으로 마당판굿, 마당밭이, 걸립굿이 있다. 가락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 즐기며 노는 웃음꽃마당을 만날 수 있다.

Jinan Jungpyeong Gut

“Jinan Jungpyeong Gut,” listed as Jeonbuk Province’s Designated Heritage No.7-8 is transmitted at Jungpyeong village of Seongsu-myeon located at the mountainous area of eastern Jeolla province. Known for its praying aspect and artistry, its music is rough, deep and fast like a mountainous landscape and consists of many tune-chunks in it. In the energetic and powerful performance, all chibae (or jaebi, instrumentalists) members show harmonious and dynamic sangmonoreum (performance with sangmo hats). “Jungpyeong Gut Madang” is a community-based performance in which its participants “work and play,” reflecting everyday human life of working, longing, struggling, sharing, and playing. It includes madangpan-gut, madangbalbi, geollipgut parts. The audience can encounter a world full of laughter where everyone can enjoy the musically-inscribed life stories.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예술가들과 공연들을 담아내는 '창작&컨템포러리: 동시대 우리 음악' 섹션은 현시대뿐만 아니라 전통예술의 미래지향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공중 퍼포먼스와 탈춤, 음악 등을 결합한 프로젝트날다×천하제일탈공작소 <니나내나 니나노>, 전통예술계에서 음악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적로> 그리고 <강은일 해금플러스>까지 다채롭다. 전라감영에서 펼쳐지는 마티네 프로그램 <전주의 아침>도 기대해 볼 만하며, 전주MBC와 공동으로 기획한 <소리프론티어×소리프론티어 2>는 경연 형태로 펼쳐져 1등 우승팀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The "Creation & Contemporariness: Today's Music of Us" section, which showcases several performances by artists who are creating new traditions in response to the times, features not only contemporary but also forward-oriented traditional artworks. The section includes "Ninanaena Ninano" by "Project NALDA X The Greatest Masque," which combines aerial performance, masked dance and music, and "Jeokro," which showed new possibilities for music theatre in the scene of traditional arts, as well as "Gang Eunil Haegeum Plus." In addition, "Morning of Jeonju," the matinee program will be held at Jeolla Gamyong (the administrative office complex of the Joseon Dynasty era). "Sori Frontier X The Birth of Sori 2,"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Jeonju MBC, will be held in the form of a competition.

[프로젝트날다×천하제일탈공작소]

니나내나 니나노

[The Greatest Masque × project NALDA]

You and I Ninano

8. 14. Wed - 15. Thu 20: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너와 나, 너희와 우리의 구분 없이 니나노
한판 즐겨보자!

<니나내나 니나노>는 '프로젝트 날다'의 공중 퍼포먼스와 '천하제일탈공작소'의 탈꾼들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신명나게 노는 니나노판을 완성했다. 낯선 방문객들이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익숙한 전통악기의 장단에 맞춰 열 지어 춤추며 등장한다. 제각각의 모습 그리고 제각각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달리 추어도 될까 싶지만, 그러면 또 어떡하리. 너, 너희, 나,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며, 니나 내나(너와 나의 경상도 방언) 달리 춘다고 큰일날 것 하나 없는, 함께 춤추며 어울리는 니나노판을 연다. 탈춤과 음악, 대형크레인을 활용한 공중 퍼포먼스의 결합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으로 펼쳐져 한 여름밤의 더위까지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Let's Just Enjoy without any Distinction
between you and me, you and us!

<You and I Ninano> i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aerial performance by the "Project NALDA" and the mask dance by "The Greatest Masque." These two troops from different fields together made an exciting place of "ninano" gathering. Dancing in rows to the tune of familiar traditional instruments, strange visitors appear on stage in different guises. Some may question about the wide variety of costumes and dancing styles - it doesn't matter here at all. They together create a place where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you and me or between you and us, where everyone respects each other's uniqueness, and wher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dancing in different styles. The combination of mask dance, music, and aerial performance using a giant crane will not only delight the eyes and ears of the audience but also offer a place where everyone can join in and thereby forget the heat of the summer night.

※ 8월 14일(수) 공연에는 예술불꽃화랑이 함께 참여합니다.

※기획제작 :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축제2023,
천하제일탈공작소, 프로젝트 날다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천하제일탈공작소: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 선정작)



[음악극]

적로-이슬의 노래

[Musical Theatre]

Jeokro - A Song of Dewdrops

8. 15. Thu 15:00/19:3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20,000 S 10,000

출연진
박종기 이상화
김계선 정윤형
산 윌 하윤주

연주
대금 박명규, 여상근
아쟁 한림
타악 김준수, 김주호
건반 황경은
클라리넷 이승훈, 이희아

제작진
극작 배삼식
작곡/음악감독 최우정
연출/안무 정영두
무대디자인 박상봉
조명디자인 이현지
음향디자인 전민배
분장디자인 정지호
예술감독 김정승
제작피디 김명주
프로듀서 오득영

필멸(必滅)의 소리로
불멸(不滅)의 예술을 꿈꾸다!

음악극 <적로>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금 명인 박종기(1880~1947)와 김계선(1891~1943) 두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우리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두 음악가의 예술혼을 통해 필멸하는 시간 앞에 불멸을 꿈꾸었던 예술가의 삶을 그려낸다. 이번 작품은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배삼식의 대본이 아름답고 힘 있는 전통음악과 최우정 작곡의 노래로 다시 태어나 감각적 융합의 하나 됨과 독특성을 드러내며, 전통예술계에서 음악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뛰어난 현대무용 안무가이자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출가 정영두의 뛰어난 연출에 의해 완성되었다.

SYNOPSIS

1941년 초가을 경성, 환갑을 넘긴 노구에 근래 깊어진 기침이 심상찮아 그간의 경성살이를 작파하고 고향 진도로 내려갈 참인 '종기'와 소목 집안 유일한 풍각쟁이로 팔자 살이를 하며 누구보다 종기의 소리를 알아주는 동료로 그의 귀향을 만류하며 성황인 '계선'이 이별주를 한잔 걸치고 실랑이를 한다.

Dreaming of Immortal art through
Inescapably-mortal Sound!

Music Theatre <Jeokro> is a story of two historical figures – daegeum masters Park Jonggi (1880-1947) and Kim Gyeseon (1891-1943), who were both activ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describing the artistic spirits of these two musicians who are not wide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despite their profound influence on Korean music, the theatre explores artists' lives who dreamed of immortality against the mortal temporality confronted by them. The script by Bae Samsik, one of the representative playwrights of Korea, became reborn with composer Choi Woojeong's arrangement as well as beautiful and powerful traditional musical elements. <Jeokro> has been praised for showing new possibilities of music theatre within the traditional art scene. The theatre was completed through the outstanding and delicate directing by Jeong Yeongdo, a contemporary dance choreographer/director who has been crossing various genres including plays, musicals, operas, etc.



강은일 해금플러스

Kang Eun-il Haegeum Plus

8. 15. Thu 20: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해금의 아름다운 선율, 다양한 동서양 악기와 장르의 만남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연주자로 꼽히는 무경계 (無境界) 해금 연주자 강은일을 중심으로 여러 동서양 악기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강은일 해금플러스’가 2024 소리축제를 찾는다. 해금을 통한 크로스오버 음악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연주자 강은일의 활대질은 종종 서슬이 시퍼런 칼날에 비교된다.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는 항상 대중과의 교감을 꾀하고 있으며, 그녀의 연주는 사람의 마음을 끌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해금선율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호흡과 다소 거친 듯한 느낌을 주는 찰현 악기의 매력이 피리, 타악, 피아노의 선율과 만나 조화를 이루며 한국음악의 새로운 잠재성을 선보인다.

Beautiful Melody of Haegeum meets other Instruments and Genres around the World

“Kang Eun-il Haegeum Plus,” led by Haegeum player Kang Eun-il who has been one of most creative and unique instrumentalists within the scene of Korean music, visits the 2024 Sori Festival. Regarded as a the pioneer of Haegeum-based crossover music, Kang Eun-il’s bow-stroking is often figuratively described as one’s running of sharpened blade. Her haegeum sound always seek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nd thus her performances deeply attract her audience. On the festival performance, the relaxing melody as well as somewhat wild sound of the rubbed string instrument will meet flutes, percussions and pianos and thereby show the new potential within Korean music.



[전주의 아침] 리코더와 정가가 들려주는 노래

[Morning of Jeonju] Songs from Jeongga
Singing with a Recorder

8. 15. Thu 10:30
전라감영 Jeolla Gamyo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한옥의 고즈넉한 공간에서 감상하는 리코더와 정가의 멋

소리축제 마니아들을 위해 마련한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의 아침! 첫 공연은 리코더와 한국 전통 성악 중 하나인 정가의 무대가 준비된다. 바로크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정가 가객 김나리의 노래를 중심으로, 중세부터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조선시대 풍류방 노래까지 시대와 국가를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이 펼쳐진다. 단아하고 평화로운 리코더 연주의 정수를 울곧이 선보이면서, 수려한 성음을 통해 시조창과 가사의 전통 그리고 현대적인 모습을 조화롭게 선사할 예정이다.

Beauty of Recorder and Jeongga Confronted within a Tranquility of Traditional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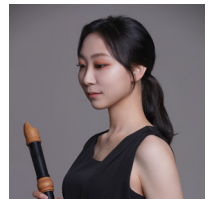
2024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s prepared the “Morning of Jeonju” section for true music lovers! The first performance in this section is for a recorder and jeongga, a traditional vocal genre of the Korean peninsula. Baroque recorder player Jeon Hyeonho and jeongga singer Kim Nari will perform a wide range of music from the medieval and baroque periods’ music of the West to pungnyubang songs (performed by nobelmen for entertainment). The performers together will harmoniously present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spects of the traditional vocal genres of sijo and gasa as well as the essence of elegant and peaceful recorder playing.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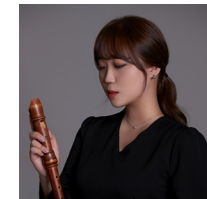
- Lucente Stella 작곡가 미상
꽃이었구나 작곡 신원영, 작사 김나리
Upon La Mi Re 토마스 프레스톤(1542-1563)
Chaconne 반주로 듣는 시창 ‘관산옹마’
Partita in a minor - Allemande - Corrente
- Sarabande - Bouree Angle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1685-1750)
늙은 갈대의 독백 시 백석, 작곡 신창렬
Trio Sonata in b minor, Op. 7, Paris 1725
/ Modérément - Gayment - Lentement
- Gigue
Hugh Ashton’s Maske 반주로 듣는 가사 춘면곡
조셉 보당 드 브와모르티에(1689-1755)



바로크 리코더 전현호



바로크 리코더 구예은



바로크 리코더 최경선



정가 김나리

[전주의 아침]

랜디 레인-루쉬와 메이 한의 월드뮤직

[A Morning of Jeonju]

Randy Raine-Reusch and Mei Han's World Music

8. 16. Fri 10:30

전라감영 Jeolla Gamyeo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사전예약제 Reservation Required

[전주의 아침]

시대가 전하는 춤 이야기

[A Morning of Jeonju]

Story of Dance from History

8. 17. Sat 10:30

전라감영 Jeolla Gamyeo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사전예약제 Reservation Required

중국 전통음악의 미학과 혁신적인 현대음악의 절묘한 결합

‘랜디 레인-루쉬(Randy Raine-Reusch)’는 캐나다 출신의 작곡가이자 즉흥 음악 연주자로, 말레이시아의 월드뮤직축제인 레인포레스트 페스티벌의 창립자이자 예술감독이다. 중국의 구쟁 명인이자 민속음악학자 메이 한(Mei Han)은 중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중국 전통음악과 미학을 뉴 뮤직(New Music), 월드뮤직(World Music), 재즈의 미학과 결합하여 급진적이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만들어 왔다. 중국 전통음악에 기반한 메이의 음악적 뿌리(roots)와 즉흥 음악가이자 다양한 악기 연주자 랜디의 현대적 음악의 혁신이 절묘하게 결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장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듀오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의 해설과 사회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The Exquisite Combin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usic and Innovative Contemporary Music

Randy Raine-Reusch is a Canadian composer and improviser, and the founder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Rainforest Festival, a world music festival in Malaysia. Mei Han is a Chinese guzheng master and ethnomusicologist, and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musical activities based on traditional Chinese music. They have combined traditional Chinese music and aesthetics with those of new music, world music, and jazz to create a new, radical repertoire. The festival stage will showcase the genre-crossing performance of this globally-active duo. Commentary by Kim Hee-sun, the chairperson of Executive Committee of the festival, will help audiences better understand their performance.



사회/해설
김희선(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연주
랜디 레인-루쉬(구쟁&즉흥연주)
메이 한(구쟁&즉흥연주)

생동감과 즉흥성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우리 춤의 매력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마티네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전주의 아침’, 세 번째 무대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우리 춤에 집중한다. 조선 후기 궁중에서 행해졌던 정재춤과 권번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정재춤에서 가장 많은 춤사위를 가지고 있는 춘앵무와 궁중 검무를, 권번의 가장 대표적인 시나위 연주와 수건춤을 함께 선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 최은숙 전문위원의 사회와 해설을 통해 우리 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Let's Just Enjoy without any Distinction between you and me, you and us!

Audiences can meet Jeongjae (court-related) and Gwonbeon (institution for training female entertainers) dances that were performed at the court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tage will showcase Chuneangmu and the sword dance, one of the most complicated parts in the court dance, and the most representative Sinawi performance and towel dance that belong to the Gwonbeon dance. Choi Eunsook, an expert member of the Jeonbuk State Gugak Center Dance Company, will host the program and provide commentary to help visitor understand traditional d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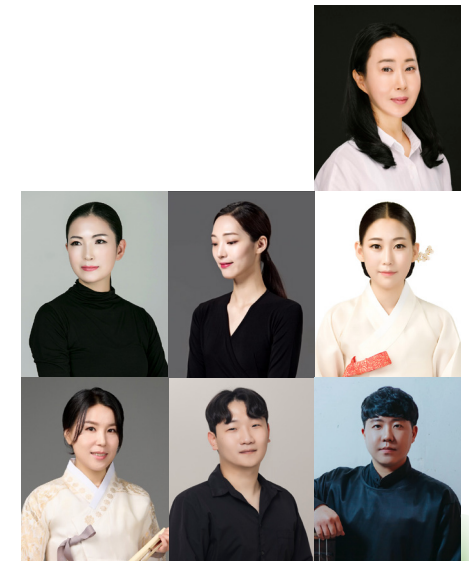
PROGRAM

춘앵무
궁중검무
시나위 연주(장구, 피리/생황, 시조(정가), 아쟁)
수건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 최은숙(지도위원), 백인숙(단원), 윤이담(단원)
교육학예실 한소리(교수)
관현악단 장인선(수석)

피리/생황 강호천
아쟁 서수진



추리밴드

Choori Band

8. 14. Wed 19: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전통연희와 현대음악을 결합하고 자신들의 색채를 담아낸 무대

재담은 허튼 랩이 되고, 춤사위는 떼춤이 되고, 불림은 떼창이 된다. 거리의 유랑패가 만들어내는 거칠고 강한 신명의 한판. 외치고 두드리고 뛰어놀며 세상을 추리하는 밴드! ‘추리밴드’는 거침없는 열기를 고스란히 음악으로 담아내는 연희 중심의 밴드로, 청춘의 고뇌를 인상적인 가사와 선율에 담고, 거센 음성 속에 들꽃 같은 간절함을 담아낸다. 일상 속 여러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출함과 동시에 다양한 퍼포밍을 함께 선보이는 음악 집단이다.

Combining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usic with the Addition of their Own Unique Colors

Witticisms become raps, gestures become group dances, and singing voices become crowd sing-alongs. A rough and impressive bout of fun created by street wanderers who question the world by shouting, tapping, and jumping! “Choori Band” is a performance-oriented band that captures their relentless fever in their music. They reflect the anguish of youth in their lyrics and melodies, and the longing in their harsh voices as wildflowers. The group expresses various stories in everyday life through music and presents various performances together.



국악 이상

GUGAK_E_SANG

8. 15. Thu 19: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한국 전통음악을 새롭게 창작해 선사하는 ‘국악 이상’ 스타일의 음악

‘국악 이상’은 바쁜 도심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젊은 국악인들이 모여 신명나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룹이다. 2014년 창단하여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창작하고 있다. 특히 2021년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하여 TOP5 오르며 대중들에게 국악의 멋과 매력을 선사했다. 국악 이상만의 스타일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국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UGAK_E_SANG” Presents a New Take on Traditional Korean Music

“GUGAK_E_SANG” is a group of young traditional artists who enjoy arts within busy and urban space and show exhilarating music and performance. Founded in 2024, the group has been creating new traditional music for the modern era. In particular, the group appeared on JTBC’s <Pungryudaejang> in 2012 and included in the top 5, conveying the charm and beauty of traditional music to the public. With their unique style, the group are striving to develop traditional music, providing comfort and impression to modern people who are tired of everyday life.



삼산

Sam San

8. 16. Fri 19: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전주세계소리축제 × 전주MBC]
소리프론티어 × 소리의 탄생2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 Jeonju MBC]
Sori Frontier × The Birth of Sori 2

8. 17. Sat 19: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전통음악 기반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 '삼산'!

국악을 재료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아티스트 '삼산'! 삶을 신랄하게 표현한 가사를 읊조리며 여러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국악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통음악인 듯,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인 듯, 본인의 고향인 삼산명에서 따온 이름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듬뿍 담은 독자적인 음악, 그것이 바로 삼산이다.

“Sam San” Gaining Attention for her Unique Music World Based on Traditional Music!

Sam San is an artist who has built a unique musical world based on traditional music. She is gaining new attention in the traditional music scene for her unconventional way of playing various traditional instruments while reciting lyrics that directly express her life. Samsan's music, which can be seen as traditional music or new music that has never been seen before or both, is unique and full of her identity, just like the name of her hometown - Samsan.

국내 최초 성장형 국악 오디션! 대망의 1등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K-흥으로 들썩이게 할 국악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올해는 전주MBC와 손을 잡고 공동기획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8월 17일(토)에는 결승 무대로 전문가와 관객심사를 통해 1등을 선정한다. 1등 JB소리상(상금 1,000만원)은 어느 팀이 거머쥐게 될까?

※ '소리프론티어X소리의 탄생2'는 방송용 촬영이 동시에 진행되며, 추후 전주MBC <소리의 탄생2>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Korea's First "Grown-type" Traditional Music Audition! Who will Win?

A project to discover traditional musicians who will bring K-culture beyond Korea to the world stage began! This year, the program will be made in collaboration with Jeonju MBC. The final stage will be held in August 17th to select the winner through the judgement of experts and audiences. Which team will win the 1st "JB Sori Prize (with 10 million Won)?"

※ "Sori Frontier X The Birth of Sori 2" performances will be filmed for broadcast, and will be broadcast on Jeonju MBC's "The Birth of Sori 2" later.



공동기획  전주세계소리축제 



식품안전
전통식품명인 제9호
무형문화재 제6호

우리술 품평회
2년연속 대상수상

이강주

人間文化財古泉謹製

이강주(梨薑酒)는 조선시대 3대 명주 중 하나로서, 전통소주에 배(梨:배나무 이)와 생강(薑:생강 강)이 들어간다 하여 이강주라 불리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이강고(梨薑膏)라 불렸습니다.

조정형 명인이 빛은 여름밤 초승달 같은 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암길28 (원동 617) 063.212.5765 http://www.leegangju.co.kr

110년 전당포의 역사가 있는 호텔어라이브 전주 시화연풍

호텔어라이브는 여행자와 지역주민, 호텔 크루가 어울리며 교류하는 로컬 커뮤니티 호텔입니다. 전당포 역사의 이야기를 담아 시화연풍의 로비에는 'STORY SHELF' 라는 전당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소중한 것 그러나 이제는 추억 속에 잊혀졌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맡아 판매하고, 수익금은 매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셸프를 통해 여행자들은 만나지 않아도 연결되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옛 전당포였던 독채 1912와 공익질옥, 그리고 시화연풍만의 따스한 객실들을 만나보세요.

문의 및 예약
063-286-2022

소리축제 관람객은
8/11~9/30까지
예약 가능

* 실시간 예약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티켓 및 예약내역 등 증빙자료 필히 지참

클래식&대중음악: 소리 인터페이스 Special & Popular

올해 '클래식&대중음악: 소리 인터페이스' 섹션은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을 주는 팀들을 만날 수 있다. 전북CBS와 공동으로 기획한 <정경화&임동혁 듀오 리사이틀>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첫 듀오 공연인 만큼 큰 기대를 모은다. 16년 만에 전주를 찾는 <세종솔로이스츠>는 30년간 쌓아온 역량이 집결된 고품격 무대로 감동을 선사하고자 하며, 한국의 전통음악을 소재로 동학농민혁명을 그려낸 '호남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녹두>도 감상할 수 있다. <글렌체크/타이거 디스코>, <윈디시티×이박사>, <대니 쿨&조윤성 트리오>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한다.

This year's "Classical & Popular Music: Sori Interface" section features some artists who make us look forward to. "Chung Kyung Wha & Lim Dong-hyek Duo Recital,"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Jeonbuk CBS, is highly anticipated as it is the first duo performance by two world-renowned violinist and pianist. The Sejong Soloists, who are returning to Jeonju in 16 years, will impress the audience with a high-quality performance that brings together their 30 years of experience. The "Honam Opera" will present "Nokdu," a creative opera depict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th traditional Korean music. "Glen Check/Tiger Disco," "WindyCity × Epaksa," and "Danny Koo & Cho Yoon Sung Trio" will provide a cool summer night with a variety of genres of music that can be together enjoyed.



[전주세계소리축제 × 전북CBS]
정경화&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 Jeonbuk CBS]
Chung Kyung-hwa&Lim Dong Hyeok Duo Recital

8. 16. Fri 19: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100,000 S 70,000 A 50,000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첫 듀오 공연

세계적인 두 예술가의 무대가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펼쳐진다.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린의 거장 정경화와 세계 3대 콩쿠르를 휩쓸며 혜성같이 떠오른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만남! 두 음악가의 첫 듀오 공연인 만큼 클래식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대가 아닐 수 없다. 세대를 뛰어넘어 환상적인 연주를 선보일 이번 공연에 주목해보길 바란다.

The First Duo Performance between
Violinist Chung Kyung-hwa and Pianist
Lim Dong Hyeok

Two world-class artists will take a stage at 2024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Violin virtuoso Chung Kyung-hwa, who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musicians in the world, and pianist Lim Dong Hyeok, who has won the world's top 3 competitions, will meet for the first time in a duo performance that will thrill classical music lovers. Let us watch how they together make a fantastic performance.

공동기획  전주세계소리축제  전북CBS

PROGRAM

[1부]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No.2 D단조

BWV 1004

Bach Partita for Violin Solo No.2 in D Minor, BWV 1004

브람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No.3

D단조 Op.108

Brahms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3 in D Minor Op.108

INTERMISSION

[2부]

프랑크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FWV.8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FWV.8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정경화

정경화는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최고의 음악인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아온 바이올린의 거장이다. 강렬한 음악적 감수성과 예술적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높은 찬사를 받아왔다. 1967년 레벤트리트 콩쿨 우승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음악계에 등장, 앙드레 프레빈, 게오르그 솔티, 클라우스 텐슈테트, 리카르도 무티, 버나드 하이팅크, 다니엘 바렌보임,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이 이끄는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며 맹활약해왔다. 또한 라두 루푸,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터 프랭클, 조성진, 김성욱 등과 호흡을 맞췄으며, 쇼팽콩쿠르 우승자(1위 없는 2위)인 케빈 케너와 2011년부터 듀오 무대를 이어오고 있다. 데카, RCA, 도이치 그라모폰, EMI 등에서 여러 전설적인 명반들을 남겼고, '아시아워크'가 뽑은 '위대한 아시아인 20인',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선정한 '최근 20년간 가장 위대한 기악연주자'에 오르기도 했다. 정경화는 지난 50년간 데카, RCA, 도이치 그라모폰, EMI 등 굴지의 레이블을 통해 협주곡에서 실내악에 이르는 총 33장의 정규 레코딩을 발표하며 여러 전설적인 명반들을 남겼다. 지난 1995년 '아시아워크'가 뽑은 '위대한 아시아인 20인' 가운데 클래식 연주자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크라이슬러, 그뤼미오, 밀스타인 등과 함께 그라모폰 명예의 전당 바이올린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아시아투어, 2014년 런던 로열페스티벌홀 리사이틀, 2016년 베르비에 페스티벌 개막연주, 2017년 뉴욕 카네기홀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줄리아드음악원 교수를 맡고 있다.



피아노 임동혁

부조니, 하마마스, 룽-티보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혜성과 같이 등장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이후, 퀴 엘리자베스,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추천으로 2001년 최연소의 나이로 클래식 레이블의 명가 EMI를 통해 데뷔 음반을 녹음하였고,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하였다. 2집으로 프랑스의 '쇼크 상'을 받았고, 3집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4집 쇼팽 프렐류드 음반 역시 영국 권위 있는 매거진 그라모폰과 BBC매거진의 극찬을 받았다. 최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작업한 라흐마니노프 5집을 발매했고, 6집 슈베르트 소나타 음반이 발매되었다. 임동혁은 샤를르 뒤투아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리 테미르카노프의 샤프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이클 틸스 토마스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현재 임동혁은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 중이다.

세종솔로이스츠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

Sejong Soloists
Violin Extravaganza

8. 18. Sun 15:0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50,000 S 30,000 A 20,000

세종솔로이스츠 30년 역사가 깃어낸 최고의 아티스트와 앙상블!

미 CNN 이 “최고의 앙상블”이라 극찬한 ‘세종솔로이스츠’가 2024 소리축제에서 1994년 창단 이후 30년간 쌓아온 역량을 집결한 고품격의 무대를 선사한다. 최고의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 그리고 세종솔로이스츠가 배출해 낸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협연자로 나서 대중성과 독창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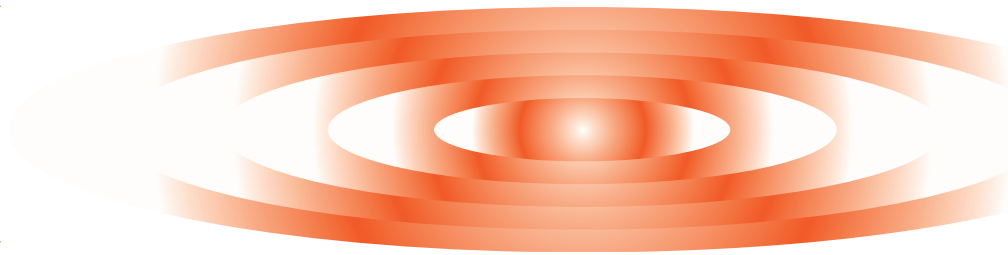
뉴욕 필하모닉 악장 프랭크 황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찬,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다니엘 조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바이올린의 화려함, 그리고 바이올린과 현악기 간 균형미의 극치를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Excellent Artists and Ensembles Made by the 30-year History of Sejong Soloists!

Sejong Soloists, praised as “the best ensemble” by CNN, presents a quality stage at 2024 Sori Festival, gathering their artistry accumulated during thirty years since its foundation in 1994. World-class musicians yielded by Sejong Soloists will perform with the ensemble and thereby show a unique program with popularity and originality.

Frank Huang, music director of the New York Philharmonic, David Chan, music director of the Metropolitan Opera Orchestra, and Daniel Cho, music director of the Hamburg Philharmonic Orchestra will perform with Sejong Soloists on this year’s festival stage. The performance will give the audiences an opportunity to enjoy the splendor of violin as well as the balance between violin and other stringed instruments.



PROGRAM

프랭크 브리지 - 왈츠 인터메조
F. Bridge - Valse Intermezzo

비발디 - 세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F장조, RV 551
A. Vivaldi - Concerto for 3 Violins in F major, RV 511
(* 협연 : 프랭크 황, 데이비드 찬, 다니엘 조)

레오나르드 - 스페니쉬 풍의 세레나데 유모레스크
H. Léonard - Sérénade Humoristique à l’espagnole

골리호프 - 마지막 라운드
O. Golijov - Last Round

INTERMISSION

멘델스존 - 현악 8중주 Op. 20
F. Mendelssohn - String Octet in E-flat Major, Op.20

세종솔로이스츠

바이올린 사동 왕(리더), 아델리아 나르트제바,
양지인, 설리만 테칼리, 김효진, 노예리, 김은지, 마크 치옌, 이은새
비올라 브라이언 찬, 신윤경, 박지은, 임세민
첼로 헤수스 카스트로 발비, 정수진, 여윤수
더블베이스 레이첼 케일린, 유이삭

협연



바이올린 프랭크 황



바이올린 데이비드 찬



바이올린 다니엘 조

호남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녹두>

Honam opera Company
Concert-Opera <Green Bean>

8. 17. Sat 15:0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 20,000 S 10,000

한국적 스타일로 변신한 창작오페라 <녹두>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콘서트 오페라로 만나다!

창작오페라 <녹두>는 한국 근대사의 여명을
연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한 작품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선봉장인 녹두장군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장군과 동학농민들이
인간 평등 및 사회 비리와 외세 침략의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봉기했던 농민혁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호남오페라단이 우리 가락을 담아낸
한국적인 창작오페라를 제작하겠다는 작품의
방향성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한 무대다. 특별히
돋보이는 음악 소재로는 판소리 명창의 도창과
태평소, 피리, 팽과리 등 국악기의 오케스트라
접목 그리고 나주 상여소리, 경풍년(정악) 등
한국의 전통음악 소재를 서구의 오페라 형식에
담아냄으로써 한국적 정서를 표현해냈다.
K-오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만날 수 있겠다.

Opera <Green Bean> :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t through Concert Opera!

Opera <Green Bean> is a revisi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at opened the dawn of
Korea's modern history. The story is about how
the revolutionaries, including Generals Jeon
Bongjoon, Son Hwajung, Kim Gaenam, and
Choi Kyungsun as well as the peasant troop,
uprose for the cause of human equality, social
justice, and the elimination of invasional foreign
powers.

The festival performance is a newly-attempted
stage by Honam Opera Company with a new
direction of creating a Korean-style opera
with traditional melodies. Particularly, several
elements of traditional music – including Pansori
dochang (interpretational singing and narrating),
folk instruments such as taepyeongso, piri,
ggwaenggwari, and funeral songs of Naju
province, Gyeongpungnyeon (court-based
instrumental music), etc. - are embraced by
the Western form of opera.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feel what “K-opera” can be through
watching the performance.



출연진

전봉준 조지훈 김개남 장군 박진철 이항 김은경
도창 신정혜 조병갑 김대업 손화중 장군/전창혁 이대혁
최경선 장군/김도삼 김지섭 김경천/고부성 이방 최요섭
덕쇠 이사야 정익서/재판관 김성진

협연

NIDO오케스트라
위너오페라합창단

제작진

예술총감독 조장남
작곡/대본 이철우
지휘 이일구
연출 김어진
합창지휘 박순석

글렌체크/타이거 디스코

Glen Check / Tiger Disco

8. 15. Thu 21: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윈디시티x이박사

WindyCity × Epaksa

8. 16. Fri 21: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청량한 신스팝과 디스코, 뛰놀며 춤추는 신나는 라이브 세계

‘글렌체크’는 청량한 신스팝 사운드를 보여주며 2년 연속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 일렉트로닉 음악상 부문 수상으로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2022년, 8년 만의 정규앨범 <Bleach> 발매는 현대적인 팝 감성 아래, 다양한 장르의 에센셜을 녹여냈다는 평을 받았으며, 매년 대형 뮤직페스티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디제이 ‘타이거 디스코’는 디스코를 중심으로 디스코에서 파생되는 음악들을 플레이하며 한국음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1960년대 한국 재즈부터 80, 90년대의 멜로우한 가요들까지 선곡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한 여름밤, 이들이 선사하는 신나는 라이브를 통해 더위를 잊고 마음껏 뒹놀며 춤 출 수 있기를 바란다.

Refreshing Synthpop and Disco - Exciting and Dancable Live Performances

“Glen Check“ has been recognized for their refreshing synthpop sound. The band won the Korean Music Awards (Best Dance Electronic Music Album) for two consecutive years. The album "Bleach" released in 2022 after five years' break was praised for melting the essentials of a variety of genres under a contemporary pop mood. The band continues to actively perform at several music festivals every year. "Tiger Disco" is a DJ who has been playing musics derived from disco. He has been trying to share the joyfulness within music by playing a wide range of Korean music from 1960's local jazz to 1980-90s' mellow pop. Their exciting live performances will make the audiences forget the heat by dancing in a summer night.



레게의 윈디시티, 뽕짝의 대부 이박사와 함께 리듬과 떼창을!

한국적 레게와 뽕짝의 만남! 이박사와 윈디시티는 다년간 음악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삶이라는 현장의 생생함을 뽕짝으로 담아온 이박사 그리고 레게와 소울이라는 음악으로 자신들의 생생한 삶을 표현해 온 윈디시티, 이들은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2013년 윈디시티의 미니앨범 <모십니다>에서 우주몽키 곡의 협연으로 시작되어 이어진 인연은 그동안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들은 그간의 경험들과 강렬한 음악적 에너지를 2024 소리축제에서 거침없이 풀어내고자 한다. 저절로 몸을 들썩이게 하고 떼창을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신명나는 무대를 기대해봐도 좋겠다.

Enjoyable Moments with WindyCity's Reggae and Epaksa's Bbongjjak!

Korean Reggae meets Bbongjjak! Epaksa and Windy City have continued their musical exchange for several years. Epaksa, who has captured the vividness of life through his music, and Windy City, who has expressed their lives through reggae and soul, share many similarities despit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ir connection began with the collaborative work <Space Monkey> in Windy City's mini-album titled "Invite" in 2013. They will together draw out their intense musical energy at the 2024 Sori Festival's stage.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their energetic stage having the power to make everyone jump and sing-along.



대니 구&조윤성 트리오

Danny Koo & Yunsung Cho Trio

8. 17. Sat 21:3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대니 구&조윤성 트리오가 들려주는 한 여름밤의 감미로운 제즈 선율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니는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이 이끄는 조윤성 트리오가 2024 소리축제에서 협연 무대를 갖는다. 대니 구는 열정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클래식 솔리스트, 실내악 연주자뿐만 아니라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윤성 트리오는 뜨거운 감성과 자유로운 영혼을 연주하는 천부적인 뮤지션 피아니스트 조윤성 그리고 베이시스트 션 펜트랜드와 드러머 석다연이 함께 한다. 대니 구와 조윤성 트리오가 선사하는 꿈 같은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낭만 가득한 여름밤을 즐겨보자!

Sweet Jazz Sound on a Summer Night by Danny Koo & Yunsung Cho Trio

Danny Koo, broadening his musical world with his passion and adventurous projects, has been actively performing in the world of classical solo and chamber music, as well as in a variety of different genres including jazz and pop. Yunsung Cho Trio consists of pianist Yunsung Cho, a gifted musician who plays with passionate emotion and free spirit, bassist Sean Pentland, and drummer Daeyeon Seok. Let us enjoy a romantic summer night with the dreamlike, beautiful and sweet music by Danny Gu and the Cho Yunsung Trio!



World Music Today

헤이초청&월드뮤직: 대화와 소통

전통과 오래된 것으로부터의 확장을 담아낸 섹션 '헤이초청&월드뮤직: 대화와 소통'에서는 한국-폴란드 수교 35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로 '폴란드 포커스'를 기획했다. 남성 현악 5중주의 강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볼로시>, 민족 음악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음악적 언어로 표현해내는 <피옌트르 다마시에비치-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 오직 소리축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콜라보 무대 <볼로시x채수현>, '어린이 소리축제' 섹션으로 배치된 <마웨 인스트루먼트>를 만날 수 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전통음악을 결합해 선보이는 <타란타 켈티카>,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에 현대적 사운드를 결합한 무대 <누산타라 비트>, 일본의 사자춤을 선보이는 <이시가와현 타케베 시시마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세대 아시아 음악인 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의 신진 음악 공연팀까지 다채로운 세계 음악을 즐겨보길 바란다.

The section 'International Invitations & World Music: Dialogue and Communication', which explores the expansion of tradition and the old, presents "Poland Focus," a special project to commemorate the 3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Poland. The festival will feature "Volosi," a male string quintet of a great charm, "Piotr Damasiewicz - 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 which will showcase a variety of musical languages based on folk music roots, "Volosi x Chae Soohyun," a special collaboration stage that can only be found at the festival and "Male Instrumenty," which will be found in the section of "Sori Festival for Children." Also, awaiting music lovers are "TarantaCeltica," which combines Irish and Italian traditional music, "Nusantara Beat," which combines Indonesian traditional music with modern sounds, "Takebe Shishimai" from Ishigawa Prefecture, which performs Japanese lion dances, and art groups from Malaysia, Vietnam, and Thailand who were selected for the Asia Culture Center's "Next Generation Asian Musicians Exchange Program."

폴란드 포커스

Poland Focus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폴란드 문화부 산하기관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Adam Mickiewicz Institution, IAM)과 함께 한국-폴란드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 <폴란드 포커스>를 선보인다. 전주세계소리축제와 IAM은 지난 2014년부터 교류를 시작, <한-폴 프로젝트 쇼팽&아리랑>(2014~2017) 공동제작 등 지속적인 교류 파트너로 신뢰를 다져왔다.

2024년 <폴란드 포커스> 프로그램은 폴란드 고유의 고원지대 민속음악부터 한국 민요 소리꾼과의 콜라보 공연, 어린이 악기 만들기 워크숍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펼친다. 폴란드의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자연환경을 통해 이룩해온 예술적 유산의 다양한 매력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폴란드 포커스>는 한국-폴란드 수교 35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로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Adam Mickiewicz Institute)과 함께 합니다.

후원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Republic of Poland

 ADAM MICKIEWICZ INSTITUT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n collaboration with the Adam Mickiewicz Institution (IAM) under the Polish Ministry of Culture, will present a special program of <Poland Focus> to celebrate the 3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Poland.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IAM began exchanges in 2014 and have continued to build trust as exchange partners, co-producing “Korea-Poland Project: Chopin & Arirang (2014-2017).”

In 2024, <Poland Focus> will feature a wide range of programs, from Poland's unique highland folk music performance to a collaborative performance with Korean folk singers and an instrument-making workshop for children. It will be a time to enjoy the diverse charms of Poland's rich history and artistic heritage, which has been created by its unique natural environment.

피오트르 다마시에비치 - 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

Piotr Damasiewicz

- 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

8. 16. Fri 20: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민족 음악에 뿌리를 두고
현대, 즉흥, 실험적 음악들을 녹여내다!

‘피오트르 다마시에비치 트리오-Into the Roots’는 피오트르 다마시에비치(Piotr Damasiewicz)와 즈비그니에프 코제라(Zbigniew Kozeira), 파베우 슈푸라(Paweł Szpura)가 결성한 팀으로 민족의 뿌리를 찾고 자연의 표현 방식을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탄생했다. 멤버 모두 아프리카 음악의 매력에 빠져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그들 사이의 음악적 소통에 큰 영향을 주었다. 피오트르 다마시에비치의 작품에는 재즈의 언어, 20세기의 클래식 음악, 민족 음악, 현대 음악과 함께 유럽식 즉흥 음악과 실험적인 음악이 모두 녹아있다. 그는 국제 음악 플랫폼 네 곳에서 폴란드 대표로 나선 바 있으며, 그중 그룹의 리더이자 작곡가, 연주자로 참여한 Art Meetings와 Melting Pot Laboratory 플랫폼에서는 다른 예술 분야와의 만남을 통해 개방적인 즉흥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Dissolving Contemporary, Improvisational, and Experimental Genres in Folk Music!

“Piotr Damasiewicz Trio – Into the Roots” is a team co-founded by Piotr Damasiewicz, Zbigniew Kozeira and Paweł Szpura. The group became formed with a desire to find an ethnic roots and to explore nature’s ways of expression. Piotr Damasiewicz’s compositions embrace the grammars of jazz, 20th Century’s classical music, folk and contemporary music as well as improvisational and experimental musics with an European-style. He had represented Poland on four international music platforms. In Art Meetings and Melting Pot Laboratory platform, where he participated as the leader, composer and performer, he presented open-minded improvisation through the meet with other art disciplines.



볼로시 × 채수현

VOLOSI × Chae Suhyeon

8. 14. Wed 21: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8. 15. Thu 17:00
익산 나바위성당
Nabawi Cathedral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남성현악 5중주 ‘볼로시’와 소리꾼 ‘채수현’의 이색적 콜라보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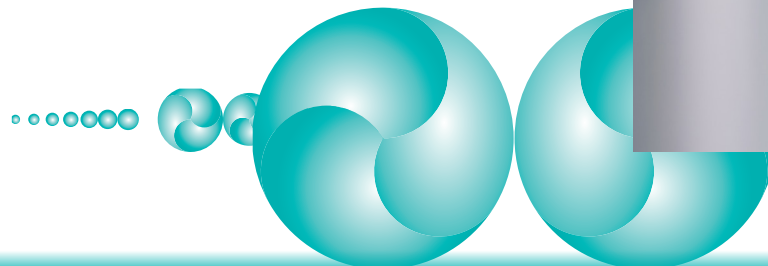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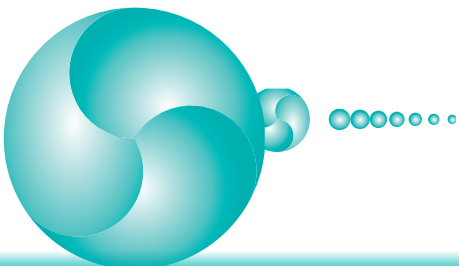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콜라보 무대! 유럽을 대표하는 폴란드 월드뮤직그룹 남성현악 5중주 ‘볼로시’와 한국을 대표하는 경기민요 소리꾼 ‘채수현’이 만났다!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첼리스트, 베이스리스트로 구성된 볼로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활기 넘치는 특유의 독창성을 담아낸 강하고 역동적인 현악 5중주를 선보인다. 채수현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맛을 선사하고 있다.

현악기 특유의 애절함과 넘치는 박진감, 당당함 등 상반된 매력에 경쾌하고 맛깔스러운 우리 소리가 더해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공연이 펼쳐지는 이색적인 느낌의 콜라보 무대, 꼭 놓치지 말길 바란다. 특히, 이 공연은 한옥과 고딕 양식, 즉 동서양 건축이 조화를 이룬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명소 ‘나바위성당’에서도 펼쳐져 더욱 이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볼로시’와 ‘채수현’의 매력과 개성 넘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겠다.

Unusual Collaboration between Male String Quintet ‘VOLOSI’ and ‘Chae Suhyeon’

Male-string quintet “VOLOSI,” one of the worldmusic groups representing Europe, and great singer of Gyeonggi-minyo (i.e., folksongs of Gyeonggi Province) “Chae Suhyeon” meet each other for this stage. VOLOSI that consists of a violist, a cellist, a bassist and two violinists shows stereotype-breaking performances with their own uniqueness and powerfulness. Chae Suhyeon, a member of Folk Music Group at National Gugak Center, presents a variety of colors within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meet their very unique collaboration that cannot be experienced in any other places. In addition, This performance, especially, will be held at Nabawi Cathedral, a beautiful site in Jeonbuk State that combines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Gothic architectural styles. Thus,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the charm and unique music from VOLOSI within a more inordinary atmosphere.



[네덜란드 ×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비트

Nusantara Beat,
Netherlands & Indonesia

8. 17. Sat 20:3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8. 18. Sun 18:00
모악광장
Moak Plaza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음악

암스테르담 출신의 여섯 뮤지션이 모여 만든 그룹 누산타라 비트(Nusantara Beat)는 자신들의 뿌리인 인도네시아를 깊이 인식하며, 전통을 기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음악의 무궁한 다양성을 알리고 그 가치를 미래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20세기 인도네시아 전통 노래에 누산타라 비트만의 스타일과 독창성을 담아 특별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또한, 신비로운 트로피컬 사운드가 황홀하게 뒤섞이며 듣는 이들을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으로 데려간다. 누산타라 비트만의 혁신적인 믹싱으로 전통의 소리를 드높이는 동시에 신선하고 현대적인 숨결을 불어 넣는 독특한 음악을 2024 소리축제에서 감상해보자!

Unique Reinterpretation of Indonesian Traditional music with a Contemporary View

Nusantara Beat, formed by Amsterdam-based six musicians, is deeply aware of their Indonesian roots and thereby are committed to not only honoring their tradition but also to introduce the diversity of Indonesian music and transmit its value to the future. They create unique sound by infusing traditional Indonesian songs of the 20th Century with their originality. Their music, through ecstatically-embracing mystical tropical sounds, transports the audiences to the land where their ancestors had lived. Nusantara Beat's innovative creation that elevates their tradition and, at the same time, adds a fresh and modern mood will wait the audience at our 2024 Sori Festival!



[아일랜드 × 이탈리아] 타란타켈티카

TarantaCeltica,
Ireland & Italy

8. 14. Wed 20: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

8. 16. Fri 20:10
모악광장
Moak Plaza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전통 음악의 결합이 빛어낸 강력한 에너지

‘타란타켈티카’의 음악은 이탈리아 남부 지방과 아일랜드의 전통 음악을 결합한 신개념 공동작업의 산물이다. 타란텔라 리듬이 발산하는 최면을 거는 듯한 에너지에 아일랜드의 흥겹고도 과감한 면이 더해져 탄생된 강력한 에너지, 그 무아지경의 에너지는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하다. 타악의 대가 안드레아 피치오니와 데이브 보이드가 세계 수준의 뮤지션을 모아 결성한 이 팀은 생기 넘치는 두 문화를 재치있게 교차시키고 옛 음악의 깊이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며 유일무이한 무대를 선사한다.

Powerful Energy Generated Through the Combination between Irish and Italian Traditional Musics

TarantaCeltica's music is a result of a new type of combination between traditional musics of Southern Italy and Ireland. Hypnotic moods yielded by Tarantella rhythm meet Irish music's cheerful and dramatic aspects co-generate a strong energy filled with fever and joyfulness. Initiated by the two master percussionists, Andrea Piccioni and Dave Boyd, TarantaCeltica offers us very unique performances made through their wittily-crossing of these two cultures as well as through reinterpreting the depth of traditionality with their own contemporary perspective.



[일본]

해설이 있는 사자춤

(이시가와현 타케베 시시마이)

Lion Dance with Commentary,
Japan

8. 17. Sat 15:00

전라감영
Jeolla Gamyeo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사전예약제 Reservation Required

용맹스럽게 춤추는 이시가와현 노토지방의 사자춤

일본의 사자춤(시시마이)을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춤이다. 일본에서 사자는 전통적으로 악령을 물리치는 영물로 여겨졌다. 나무로 조각된 사자탈과 화려한 문양의 천을 쓴 책·피리·징 등의 반주와 추임새에 맞추어 일본의 요괴이자 악령을 상징하는 텐구(天狗)를 상대로 용맹스럽게 춤추는 것이 특징이다. 본래 사자춤은 인도에서 유래해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까지 전래된 것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일본 이시가와현의 우호교류 협약을 통해 성사되었으며, 유네스코야태무형유산센터의 박원모 실장의 해설을 통해 일본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회/해설
박원모(유네스코야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실장)

Brave Lion Dance of Ishikawa Prefecture's Noto Region

"The Takebe Lion Dance Preservation Society" is a group that aims to preserve and inherit the culture "Lion Dance," a traditional performing art that has been passed down in the Noto area of Ishikawa Prefecture. Lion Dance is characterized by a large-bodied lion and its counterpart (tengu, 天狗) dancing valiantly to the accompaniment of drums, flutes, and gongs and encouraging exclamations. It is believed to purify ritual spaces and ward off evil spirits. Park Wonmo, Head of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Unit at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offers commentaries on the performance.



협력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이시가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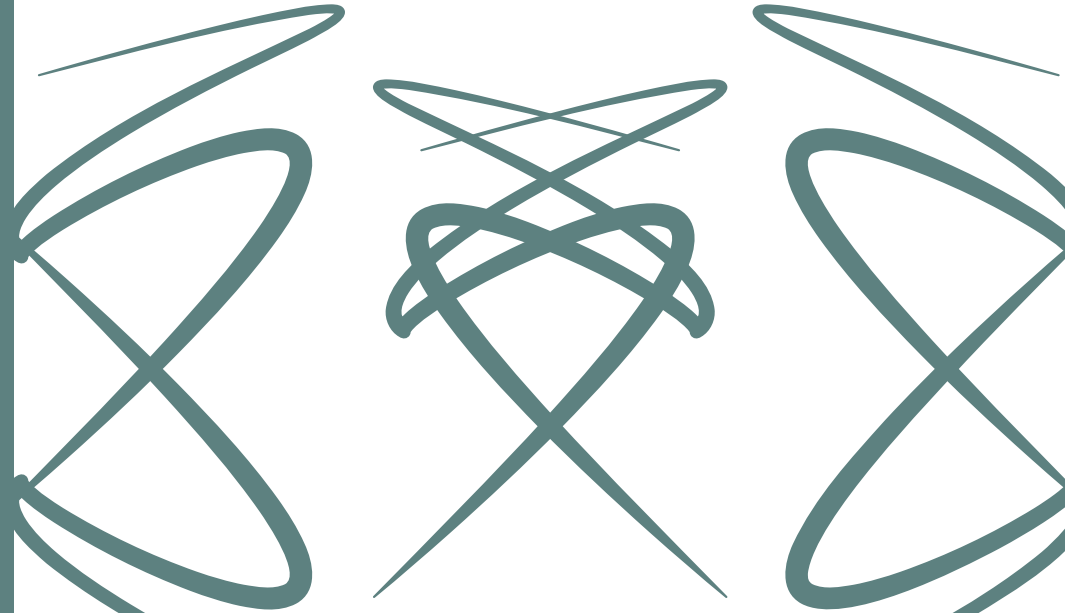
전주세계소리축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차세대 아시아 음악인 교류사업

Jeonju Int'l Sori Festival × National Asia Culture Center
The Music of New Asia:
Next Generation Musician Program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024 한국-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차세대 아시아 음악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의 젊은 음악인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각국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음악적 도전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2024 소리축제 무대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스타나 부다야 전통음악 앙상블>, 베트남 <전통앙상블-뚜 쿠이>, 태국 <니사티와>가 공연을 펼친다.

In celebration of the 3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ASEAN-Republic of Korea dialogue relations in 2024,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Asia Culture Center are promoting the “Next Generation Asian Musicians Exchange Program.” The program aims to introduce young musicians from 10 ASEAN countries, and presents musical challenges based on the traditions of each society. 2024 Sori Festival will feature performances by Malaysia's Istana Budaya Traditional Music Ensemble, Vietnam's “Tu Quy”, and Thailand's Nisatiwa.

협력



[말레이시아]

이스타나 부다야 전통음악 앙상블

Istana Budaya Traditional Ensemble, Malaysia

8. 16. Fri 19:00

모악광장
Moak Plaza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베트남]

전통앙상블 <뚜 쿠이>

Tu Quy, Viet Nam

8. 17. Sat 19:00

모악광장
Moak Plaza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21세기 말레이시아 음악의 다양성을 만나다!

‘이스타나 부다야(Istana Budaya)’는 문화의 궁전이라는 뜻의 말레이시아 국립극장으로 말레이시아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이 팀은 이스타나 부다야 소속 ‘말레이시아 전통 오케스트라(Traditional Orchestra Malaysian, OTM)’ 연주자 4인으로 구성된 앙상블이다. 이들의 음악은 말레이, 사라왁, 오랑 아슬리(Orang Asli) 등 말레이 반도 인근 지역의 다양한 부족의 음악들이 한데 모인 21세기 말레이시아 음악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페(Sape), 레바나(Rebana), 세룰링(Seruling)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말레이시아 지역의 악기들이 빚어내는 말레이 반도의 다양한 전통음악들을 한자리에서 들어보는 귀한 무대가 될 것이다.

Leslie Anak Eli / Sape
Khairul Hakim Kamal / Seruling
Mohamad Sofie Abdul Wahid / Rebana
Hasnul Hafizi Mohamad Noor Hardi/
Accordion

Stories of Diverse Musics and Instruments of the Malay Peninsula

Malaysia is a multicultural state that consists of different ethnics and tribes, including Malays, (overseas) Chinese, Indians, Orang Asli, Sarawakians and others. Visitors will learn about the diversity of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of the Malay Peninsula through watching a performance by the “Istana Budaya Traditional Ensemble,” a group affiliated to the National Theater of Malaysia.



베트남 전통음악 선율의 아름다움을 만나다!

베트남 전통앙상블 ‘뚜 쿠이’는 베트남의 젊은 음악인 4인으로 구성된 앙상블이다. 단바우(Dan Bau), 단티바(Dan Ty Ba), 단니(Dan Nhi) 등 베트남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주요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음악의 고유 멜로디와 현대의 친근한 음악들까지 베트남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Thuy Linh Le / Dan Bau
Dieu Thao Vu / Dan Ty ba
Bao Chau Nguyen Ngoc / Dan Nhi
Bao Tran Nguyen Ngoc / Sao Truc

Meet the Beauty of Vietnamese Traditional Music!

“Tu Quy” is a traditional ensemble of four young Vietnamese musicians. Composed of instruments representing traditional Vietnamese music including Dan Bau, Dan Ty Ba, Dan Nhi, and the ensemble presents the beauty of traditional Vietnamese music, covering from the original melodies of traditional music to modern and popular repertoire.



[태국]

포크트로니카 <니사티와>

Nisatiwa, Thailand

8. 17. Sat 20:10

모악광장
Moak Plaza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태국 젊은 음악인들이 꿈꾸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

태국어로 ‘밤과 낮(Night and Day)’이라는 뜻의 ‘니사티와’는 태국의 전통음악과 일렉트로닉, 로우파이, 힙합이 결합된 음악을 선보이는 듀오 밴드다. 이들은 자신의 음악을 ‘포크트로니카’로 정의한다. 태국 전통 현악기 쏘두앙(Saw Duang), 쏘우(Saw U), 핀(Phin)과 관악기 깐(Khaen)을 기반으로 오래된 민속음악을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재구성한다. 밤과 낮처럼 서로 다른 두 음악,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Yoye' Narisara Sakpunjachot
'Ton' Tontrakul Kaewyong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Modernity
Dreamt up by Young Thai Musicians

Nisatiwa, which means 'night and day' in Thai, is a duo whose music combines traditional Thai music with electronic, lo-fi and hip-hop influences. They define their music as "folktronica." Based on the traditional Thai stringed instruments such as saw duang, saw u, and phin and the wind instrument khaen, they reconstruct old folk music into a modern electronic sound. Their aim is to create music in which two different the genres -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 coexist together as night and day.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꾸러진 ‘어린이 소리축제: 헬로우! 패밀리’ 섹션에는 국내외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배치됐다.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가 할아버지>,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을 비롯해 작은 악기들의 세상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폴란드 포커스 <마웨 인스트루먼트>, 색과 종이, 붓으로 그리는 신비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체코의 <리틀 비저터>, 해설과 함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세계음악여행 <아일랜드&이탈리아>, <폴란드>까지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 참가작품 전시’와 ‘꿈담놀이터: 초록장화 작가의 만지고, 느끼고 상상하기’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상상으로 가득한 신나는 여름방학을 선물해 줄 수 있겠다.

The "Sori Festival for Children: Hello! Family" section, which features programs for kids and family visitors, presents quality programs by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There are many interesting and varied programs, including "Puppet Play with Recycled Materials <An Elderly Man Playing Pipe with his Handcart>," "Unpredictable Circus <Mok-Rim-Sam>," the "Poland Focus: <Male Instrumenty>" where visitors can meet and experience the world of small musical instruments. Other exciting programs include "Little Visitors" by Czech Republic artists, where participants can discover the mysterious world of colors, papers and brushes, and the world music journeys "Ireland & Italy" and "Poland," which will feature performances with commentary. The exhibition of entries to the "Children's Logo-decoration Contest" and the program "Ggumdam Playground: Touching, Feeling and Imagining by "Chorokjanghwa" will also give children an exciting summer holiday full of imagination.

[폴란드 포커스]
마웨 인스트루먼티

[Poland Focus]
Male Instrumenty

8. 14. Wed - 16. Fri 12:00/16:00

전시장 Exhibition hall

36개월 이상 Over 36 Months
 10,000

**작은 악기의 다채로운 소리 탐구 실험
 독특한 음색, 혹은 미완의 아름다운
 매력까지!**

다양한 소악기로 새로운 소리를 탐구하는 폴란드 밴드 ‘마웨 인스트루먼티(Male Instrumenty)’! 폴란드어로 ‘작은 악기’를 뜻한다. 이들의 소리 실험에 사용되는 악기는 전문가용 악기와 어린이용 소리나는 장난감부터 정식 악기는 아니지만 소리를 낼 수 있는 각종 소품들이 다채롭게 사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아름답고 섬세하며, 독특한 음색을 뽐낸다. 때로는 불완전하고 정제되지 않은 소리를 통해 미완의 매력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번 ‘어린이 소리축제’에서는 마웨 인스트루먼티 멤버 4명과 함께 작은 악기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자신만의 악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일상 속 친근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작지만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미니 악기들의 세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소리를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

**Sound Experiment of Small Colorful
 Instruments
 Unique Timbres, Unrefined Beauties**

The Polish band “Male Instrumenty” explores new sounds with a variety of small instruments! The band’s name means “small instruments” in Polish. The instruments used in their sound-explorations range from professional ones and children’s toy instruments to all sorts of props that are not regarded as instruments but can still produce sound. The music they create is beautiful, delicate, and unique in its timbre. Sometimes, less-refined sounds help us find “the charm of the unfinished.”

At the “Sori Festival for Children,” visitors will listen to the sounds of small instruments, make their own instruments, and then create their own music for films with the four members of Male Instrumenty. The world of small and unique mini-instruments made from everyday materials will offer a unique experience to create one’s own sound!

시간 프로그램명

12:00 **마웨 인스트루먼티:
 작은 악기들의 세상**

토이 피아노, 희귀한 장난감 악기와 이 세상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어보고 직접 연주해본다.

16:00 **마웨 인스트루먼티:
 나만의 악기 만들기**

세상에 단 하나, 나만의 악기를 직접 만들어본다.

‘마웨 인스트루먼티’는 2006년 파베우 로만추크(Paweł Romanczuk)를 중심으로 결성된 이후, 토이 피아노부터 직접 만든 작은 첼로까지, 다양한 종류의 작은 악기들을 사용해 새로운 사운드를 연구해왔다. 영화음악, 오디오북 음악 등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소리 탐구를 이어오고 있다.

※ 본 프로그램은 “꿈담놀이터: 초록장화 작가의 만지고, 느끼고, 상상하기”체험(30분)과 공연관람(6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간대별로 워크숍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한국]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

An Elderly Man Playing Pipe with his Handcart, Korea

8. 14. Wed - 16. Fri
10:00/14:00
전시장 Exhibition hall

36개월 이상 Over 36 Months
10,000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의 1인 인형극
생명력 얻은 재활용 물건, 상상의 나라 가득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고물 할아버지 수레에는 어느 극단에서 쓰지 않는 소품, 종이박스를 기본으로 병,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활용 물건들이 실려 있다. 할아버지는 물건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이 물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휴지심 어린왕자, 소주병 아저씨, 비닐과 박스로 만든 인형들이 나와서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 가끔 피리 연주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을 선보이는 극단 동당애는 어떻게 하면 동당거리며 잘 놀까를 고민하는 단체다. 세상 모든 이의 삶과 만나 후렴해주고, 놀아주고, 세상 중심에서 비껴난 삶들을 당당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표 김광용은 연출,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 본 프로그램은 “꿈담놀이터: 초록장화 작가의 만지고, 느끼고, 상상하기” 체험(30분)과 공연관람(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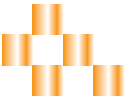
One-man Puppet Theatre of an Elderly Man
Playing Pipe with his Handcart
Imaginative Inspiration from Recycled
Materials Brought to Life

In a story told by an elderly man, his wheelbarrow is filled with recycled objects such as bottles, paper boxes and props that a theater troupe does not use. He brings them to life and uses them to tell his stories. A prince made out of a roll-type toilet paper, a soju-bottle man, and puppets made of plastic and cardboard appear and make their stories, often accompanied by flute sounds.

The troupe <Dungdangae> has been thinking about how to have fun through play well. The group wants to meet the lives of everyone in the world, play with them, and talk openly about the lives that have been left out of the center of the world. Working on various works based on tradition, they produce performances with the foci of historical, street-based, and family drama, and goes wherever there is an audience. The director, Kim Gwangyong, is also active in the scene as an actor as well.



2024 어린이 소리축제
주말 프로그램 일정표



<어린이 소리축제 일일권>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8/17(토)	8/18(일)
10:00~18:00	• 꿈담놀이터: 초록장화 작가의 만지고, 느끼고, 상상하기 • 어린이 로고꾸미기 대회 참가작품 전시	
10:30~11:20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木林森)>	
13:30~14:30	세계음악여행 <아일랜드&이탈리아>	세계음악여행 <폴란드>
16:00~16:50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木林森)>	

※ 관람등급 : 36개월 이상 / 티켓가격(1일권) : 1만원

오브제 씨어터 <리틀 비지터> 공연 일정표

시간	8/17(토)	8/18(일)
10:00~18:00	• 꿈담놀이터: 초록장화 작가의 만지고, 느끼고, 상상하기 • 어린이 로고꾸미기 대회 참가작품 전시	
10:30~11:20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木林森)>	
11:30~12:30	[3층] 오브제 씨어터 <리틀 비지터> (1회차)	
13:30~14:30	세계음악여행 <아일랜드&이탈리아>	세계음악여행 <폴란드>
16:00~16:50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木林森)>	
17:00~18:00	[3층] 오브제 씨어터 <리틀 비지터> (2회차)	

※ 관람등급 : 48개월 이상 / 티켓가격(1일권 포함) : 1만5천원

※ 본 예매권은 해당 일자 ‘어린이 소리축제 일일권’이 포함된 상품으로 당일 해당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시장 공연들을 자유롭게 관람 및 체험가능합니다.

[한국]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木林森)

Unpredictable Circus

TREE, TREES, TRES, Korea

8. 17. Sat - 18. Sun

10:30/16:00

전시장 Exhibition hall

36개월 이상 Over 36 Months

10,000

[체코] 오브제 씨어터

리를 비지터

Objet Theater

Little Visitor, Czech

8. 17. Sat - 18. Sun

11:30/17:00

전시장 Exhibition hall

48개월 이상 Over 48 Months

15,000

디지털 세계에 갇힌 현대인들을 구하라!

사람이 하나면 木(목), 둘이면 林(림), 셋이면 森(삼)! 만물의 균형을 주관하는 균형의 신이 균형을 잃어버린 현대사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균형의 요원들을 전주로 보냈다. 이들은 균형의 신의 미션에 따라 도시 속 원시림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혼란에 빠진다. 균형의 요원들은 혼신을 다해 원초적으로 원시림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슬아슬 비틀비틀 요원들은 과연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균형을 통해 살아있는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흥미진진한 우당탕탕 서커스극과 함께 신나게 즐겨보자!

Let us Save Modern People Trapped in the Digital World!

A person - 木, two - 林, and three - 森!
The God of Balance, who controls the balance of all things of the world, sends agents of balance to Jeonju to restore unbalancedness of the modern world. The agents attempt to establish a primeval forest in the city following as ordered by of the God of Balance, but they are thrown into turmoil in the process. Can the agents complete their mission? Let us enjoy this exciting circus show that speaks of the sense of being alive through balance!



색과 종이, 붓으로 그리는 신비로운 세계

“동물 친구들, 버섯, 상상 속 존재들과 함께 사는, 조금은 괴짜 같은 여인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그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꽃과 허브 향신료에서 다양한 색을 얻는다. 작업을 할 때는 잠자코 있거나 가끔 조용히 혼잣말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집에 놀러 와 자신의 그림을 감상하고, 함께 둘러앉아 신비로운 시간을 보내는 걸 무척 좋아한다. 그녀와 함께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자!”

오브제 씨어터 <리를 비지터>는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여준다. 색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체험하고, 종이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지켜보며, 직접 붓을 잡고 표면에 미끄러지듯 칠해보고 붓의 저항을 느껴보기도 한다. 멀리서는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면 기적의 언어로 들려주기 시작한다. 화가 겸 삽화가 베로니카(Veronika Vlková)가 펼치는 이 공연은 전시와 연극 두 장르의 경계를 넘나든다.

A Mystical World Made Through Colors, Papers, and Brushes

“A slightly eccentric woman who lives with her animals, mushrooms and imaginary friends greets the audience. She loves to paint and gets a variety of colors from flowers and herbs. When she works, she is often silent but sometimes talks quietly to herself. She loves to have people come to her house to appreciate her paintings and to sit around and spend a mystical time together. Let us paint something with her!”

The objet theatre <Little Visitor> brings everything up close. Visitors can get to experience the moment of colors' creation, and to watch how the colors absorbed into the paper. Visitors also can hold and slide a brush across the surface, feeling the resistance of it. The performance by painter and illustrator Veronika Vlková crosses the genre-boundaries between exhibition and theatre.

ERAS CED

후원



세계음악여행

Journey of World Music

8. 17. Sat - 18. Sun 13:30

전시장 Exhibition hall

36개월 이상 Over 36 Months
10,000

아일랜드&이탈리아 | 8. 17. Sat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로 동시에 떠나는 음악 여행!

연주 타란타켈티카 사회/해설 **신경아**(여행작가)

아일랜드의 켈틱(Celtic) 음악은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밝은 멜로디로 한국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타란텔라(Tarantella)는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춤음악으로, 빠른 비트의 경쾌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아일랜드 켈틱 음악가와 이탈리아 타란텔라 음악인들이 함께 결성한 '타란타켈티카'의 연주와 이야기를 <세상의 끝에서 만난 음악>의 저자인 신경아 작가의 해설을 통해 들어보자!

Journey of World Music <Ireland & Italy>

Celtic music from Ireland has been loved by Korean audiences for its unique lyrical and bright melodies. Tarantella is a form of dance music from southern Italy, characterized by the liveliness and vividness of its fast-paced beats. Let us listen to the performance and stories of "TarantaCeltica," which was formed by Irish Celtic musicians and Italian Tarantella musicians, with a world music expert's commentaries!



후원 Cultúr Éireann Culture Ireland

후원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폴란드 | 8. 18. Sun

폴란드 하이랜더들의 음악과 문화 이야기

연주 **피오토르 다마시에비치**
-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
사회/해설 **김현준**(음악평론가)

폴란드 남부지역은 높은 산악지대가 발달해 고원지대 특유의 민속문화가 널리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폴란드를 대표하는 재즈 음악가들과 남부 하이랜더(Highlander 고원지대 주민) 출신 민속음악가들이 직접 소개하는 고원지대 문화와 음악! 하모니움, 김브리, 두디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독특한 악기들의 다채로운 소리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음악평론가 김현준의 사회와 해설로 폴란드 민속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후원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Republic of Poland

후원 ADAM MICKIEWICZ INSTITUTE

Journey of World Music <Poland >

The high mountainous area of Southern Poland is the home to a rich folk culture that is unique to the highlands. Poland's leading jazz artists and southern Highlander folk musicians introduce the culture and music of the highlands. Audiences can experience the colorful sounds of harmonium, guembri, dudy, and other unique instruments that can be met easily.



말레이시아 | 8. 17. Sat

8. 17. Sat 16:20

전라감영

Jeolla Gamyeo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사전예약제 Reservation Required

말레이반도의 다양한 음악과 악기 이야기

연주 **이스타나 부다야 전통 앙상블**
사회/해설 **황윤기**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중국인(화교), 인도인부터 소수 부족인 오랑 아슬리, 사라왁까지 다양한 인종과 부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다. 말레이시아 국립극장 소속 단체인 '이스타나 부다야 전통음악 앙상블'의 연주를 통해 말레이반도의 다양한 음악과 악기를 알아본다.

Musical Journey of the World <Malaysia >

Malaysia is a multicultural state that consists of different ethnoses and tribes, including Malays, (overseas) Chinese, Indians, Orang Asli, Sarawakians and others. Visitors will learn about the diversity of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of the Malay Peninsula through watching a performance by the "Istana Budaya Traditional Ensemble," a group affiliated to the National Theater of Malaysia.

협력 A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Foundation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어린이 소리축제 두 배 즐기기

Double the Fun of
"Sori Festival for Children"

8. 14. Wed - 18. Sun
10:00~18:00
전시장 Exhibition hall

소리축제 속 작은 축제 '2024 어린이 소리축제'는 국/내외의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 소리축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2024 Sori Festival for Children," a small festival within the Sori Festival, will not only feature a wide range of quality performances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but also a variety of other programs(2024 Exhibition of Children's Logo-decoration Contest Artworks, Ggumdam Playground: Touching, Feeling and Imagining by "Chorokjanghwa") to make the festival more fun.

2024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 참가작 전시

지난 4월, 어린이들에게 독창성과 창의성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는 소리축제 로고를 활용해 자유롭게 꾸미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리기 대회로 올해는 '여름'을 주제로 진행됐다. 340여 점 이상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33점이 선정되었으며, 소리축제 기간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의 아이디어와 표현력이 돋보이는 선정작들을 만날 수 있다.



꿈담놀이타: 초록장화 작가의 만지고, 느끼고, 상상하기

서학예술마을에서 작업 공간인 '초록장화'를 운영하고 있는 초록장화 작가, 초록장화를 즐겨 신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진 아기자기한 놀이타가 올해 '어린이 소리축제'에 만들어진다. 이야기가 흐르는 놀이타에서 직접 만져보고 느끼며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꿈과 환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찾아가는 소리축제&아카데미: 글로컬 랩'은 올해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으로 가는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연중 프로젝트로 기획해 4월부터 진행되었으며, 축제 기간에는 5개 시군으로 찾아간다. 신규 아카데미 프로그램 <월드뮤직 아카데미>는 6월과 7월 중 젊은 월드뮤직 아티스트들과 함께 떠나는 세계 음악 여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또 다른 신규사업 <소리학술포럼>은 판소리, 민요, 풍물, 무용, 무형유산 5개 분야 학술 포럼으로 축제 기간 열린다. 새롭게 신설된 국내/외 음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합숙형 캠프 프로그램 <소리캠프>는 7월 호주 멜버른대학교 학생들에 이어 8월에는 국내 한국 음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되며, 공연 관람 및 전문가 특강,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The "Arts Caravan & Academy: Glocal LAB" program has been strengthened this year. The "Arts Caravan," which traveled to 14 subregions of Jeonbuk State, began as a year-round project in April and will visit five regions during the festival period. "World Music Academy," a newly launched festival program of exploring world music with young artists, was successfully held in June and July. Another new program, the "Sori Academic Forum," will be held during the festival period as a forum covering five academic fields: pansori, folk songs, pungmul, dance, and intangible heritage. The "Sori Camp," a newly established camp program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 students, will be held for Korean music students in August, following the pre-festival program for Melbourne University students held in July, in which participants will watch performances, attend lectures by experts and have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artists.

소리학술포럼

Sori Academic Forum

8. 14. Wed - 18. Sun

14:00~17:00

중회의실

Conference room,
Exhibition hall 1F

2024년 소리축제의 신설 프로그램 ‘소리학술포럼’은 한국 전통예술과 관련된 분야별 학회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공연예술 현장과 학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통예술의 현황과 과제를 돌아보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한국풍물굿학회, 무용역사기록학회, 판소리학회, 한국민요학회, 무형문화연구원 등이 분야별 주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통예술의 현황과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2024 Sori Festival's new program, "Sori Academic Forum," will be held in collaboration with academic associ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arts. This program is designed to raise awareness of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raditional arts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the performing arts world and academia. This year, the Korean Pungmulgut Society,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the Pansori Society, the Society of Korean Folk Songs, and the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Studies will discus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local traditional arts, with a focus on Jeonbuk State.

한국풍물굿학회 : 전북의 농악 - 농악 전승 담론과 현실 | 8. 14. Wed

- 발제 1. 농악 전승 담론 - 전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발제 2. 농악 전승과 사회 환경 - 김원민(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발제 3. 여성농악단의 삶과 예술 - 박소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 발제 4. 발전주의 체제와 농악 경연 대회 - 오하영(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토론 | 김동원(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시지은(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양옥경(전북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신소연(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학예연구사)

무용역사기록학회 : 전북의 춤 - 전북지역 무용진흥을 위한 정책 담론 모색 | 8. 15. Thu

- 발제 1. 전북지역 무용 인프라 현황과 진흥 방안 - 김무철(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학예연구사)
- 발제 2. 전북지역 무용공연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심정민(한국무용평론가협회 회장)
- 발제 3. 전북지역 전통춤 현황과 전승 방안 - 박선욱(한국춤화자료원 초빙연구원)
- 발제 4. 전북지역 무용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 오정은(전북대 무용학과 강사)

토론 | 이혜경(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 단장), 장지원(무용평론가)

판소리학회 - 전북의 판소리 | 8. 16. Fri

- 발제 1. 순창의 판소리 - 최동현(군산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2. 전주지역 판소리 전승의 현황과 특성 - 김정태(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학예연구사)
- 발제 3. 남원 지역 판소리의 전승과 현황: 남원 출신 대표 명창들과 국립민속국악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 정진(한양대학교 강사)
- 발제 4. 고창판소리박물관의 유형 물질을 통해 검증되는 무형문화재 전시 - 조민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 정병현((사)한국중고재판소리문화진흥원 회장), 박성환((사)한국중고재판소리문화진흥원 이사장), 박지인(한양대학교 강사), 김형근(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한국민요학회 - 전북 민요 연구의 현황과 미래 | 8. 17. Sat

- 발제 1. 전북민요 연구의 성과와 확장의 가능성 - 이용식(전남대학교 교수, 한국민요학회 회장)
- 발제 2. 전북 어업노동요의 분포와 음악 특징 - 신은주(전북대학교 교수, 한국민요학회 부회장)
- 발제 3. 전북민요의 교육적 활용과 확장 가능성 - 이동희(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국악교육학회 총무이사)
- 발제 4. 전북민요의 재조명 사례 연구: 군산 옥구들노래를 중심으로 - 이혜정(전북대학교 박사, 한국국악학회)

토론 | 임란경(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한국민요학회 편집이사), 권도희(경북대학교 교수/한국민요학회 연구이사), 김미영(전남대학교 연구교수/한국민요학회 총무이사), 서지혜(전남대학교 박사/한국민요학회 총무간사)

무형문화연구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힘, 미래와 세계로 | 8. 18. Sun

[1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현재와 미래

- 발제 1. 전북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 왕기석(전라북도무형문화재연합회 회장)
- 발제 2. 무형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NGO 역할과 국제네트워킹: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JIAPICH) 사례를 중심으로 - 홍신화(무형문화연구원)
- 발제 3. 리빙헤리티지로서 전북 공예 문화 만들기 - 설지희(프롬이어)
- 발제 4. 전통 지식으로서 전북 식문화의 가치와 아카이브: 전북 음식아카이브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 오세미나(전북대학교)

[2부] [현장의 목소리] 전북 무형유산의 젊은 이수자들과의 대화 | 모더레이팅 : 김나현(무형문화연구원 YP)

[3부] 전북 무형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좌장 : 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

토론 | 박정석(목포대학교/무형유산학회 회장), 정성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김병오(전주대학교 교수)

찾아가는 소리축제

Arts Caravan with Sori Festival

2015년부터 미래 관객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국내외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왔다. 지난해부터는 학교를 벗어나 도서관, 공연장, 갤러리 등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까지 넓히고 있으며, 올해는 사계절, 일상으로 찾아가는 예술, 연결과 확장성을 키워드로 연간 기획을 통해 도민들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며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Since last year, the festival has expanded its scope beyond schools to other types of cultural spaces such as libraries, performance halls, galleries, etc. to reach a wider audience. This year, with the key themes of “Four Seasons, Art in Everyday Life, Connection and Expandability,” the festival has held a year-round series of performances, allowing residents to enjoy diverse and quality experiences through art that can be easily encountered in daily life.



2024 찾아가는 소리축제 일정표

지역	일자	시간	장소	프로그램
임실	4. 12.(금)	10:30	대리초등학교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
순창	4. 13.(토)	14:00	순창군립도서관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
익산	4. 13.(토)	14:00	익산금마도서관	해설이 있는 판소리: 이용선 명창 (고수_오희민)
고창	4. 15.(월)	10:00	고창고등학교	한지인형극 <동동동 팔죽할멈>
진안	4. 17.(수)	10:10	조림초등학교	한지인형극 <동동동 팔죽할멈>
군산	4. 19.(금)	19:30	군산예술의전당	해설이 있는 콘서트: 루마니안 랩소디 (사회/해설_신경아)
정읍	5. 11.(토)	16:00	이오일스페이스	뮤즈그레인/고상지 트리오
부안	5. 18.(토)	16:00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릴리 컴퍼니
완주	8. 07.(수)	13:30	고산고등학교	[체코] 퍼포먼스 워크숍 <Sprits of Plants>
남원	8. 08.(목)	17:00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체코] 퍼포먼스 워크숍 <Sprits of Plants>
김제	8. 15.(목)	11:00	지평선고등학교	월드뮤직 워크숍 <아일랜드x이탈리아>
장수	8. 17.(토)	20:00	논개골행복나눔터	월드뮤직 워크숍 <폴란드>
무주	8. 18.(일)	11:00	무주초등학교	월드뮤직 워크숍 <베트남>

소리캠프

Arts Caravan with Sori Camp

2024 소리축제는 국내/외 음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풍성한 전통음악 자산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합숙형 캠프 프로그램인 '소리캠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관련 분야 전공생들에게 다양한 경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소리캠프1: 글로벌 아틀리에 in 전주>는 호주 멜버른대학교의 '글로벌 아틀리에' 연계 프로그램이다. 7월 멜버른 대학교 재즈&즉흥음악 전공생 20여명이 고창농악보존회와 전주문화재단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한국 전통음악과 문화의 특별함을 경험했다.

<소리캠프2: 글로벌 한국음악을 향하여>는 8월 축제 기간에 진행된다. 국내 한국음악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현대적 형태의 '산공부'로, 소리축제의 주요 공연들을 관람하고, 전문가 특강과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소리마을로 오세요! 여름바캉스!

Come to Sori Village
for your Summer Holiday!

운영시간
8. 14. Wed - 16. Fri
16:00~22:00
8. 17. Sat - 18. Sun
14:00~22:00

2024 소리축제에서 예술성이 높은, 대중성이 가득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보고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들도 마음껏 즐겨보자! 전북특별자치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소리마을 슬세권(슬리퍼 생활권)! 각종 공예 체험과 손수 만든 작가들의 작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과 추억을 담아가할 수 있는 이벤트, 이 외에 신나는 댄스파티가 펼쳐질 'K-POP 플레이그라운드'도 놓치지 말자! 소리마을에서 시원한 여름바캉스를 즐겨보길 바란다.

Let us watch highly artistic and popular performances of various genres and enjoy a variety of other programs at 2024 Sori Festival! The Sori Village "Seulsegwon" (area that can be casually accessed in slippers) will be co-created with Jeonbuk State residents! Various craft experiences, a flea market of hand-made artworks, food trucks and other events to capture memories as well as "K-POP Playground" where you can have a fun dance party will be gathering! Let us enjoy a cool summer vacation at Sori Village.



소리가 빛으로, 체험놀이터

소리마을 곳곳을 내 손으로 밝게 빛내보자!
무드등 만들기부터 시원한 전통부채 만들기까지
여름 소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체험종류] 뜨개꽃 키링만들기,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커피박 화분 꾸미기, 3D 펜 체험 등



소리가 향기로, 플라마켓

소리마을이 향기로 가득 찬다. 수제 미스트, 향수,
해충기피제 등 여름용 상품들이 판매된다. 손수 만든 의류,
액세서리, 생활소품까지 지역의 전문 공예인들의 작품도
구매 가능하다.



맛있는 소리, 푸드코트

소리마을에 가득 채워진 맛있는 소리, 푸드코트도 방문해
보자! 핑거푸드부터 식사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까지
오감이 행복해지는 푸드코트를 즐길 수 있다.



소리, 엽서에 담다!

2024 소리축제의 추억들을 1년 뒤 다시금 꺼내 본다면?
소리마을 이벤트 현장에 비치된 엽서를 작성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 받아볼 수 있다.
엽서를 보내기 전 이벤트 부스에서 기념품을 받는 것은 덤!
잊지 말고 꼭 참여해 보길 바란다.

K-POP 플레이그라운드

8. 17. Sat 19:00

K-POP Playground

전주경기전 Jeonju Gyeonggijeon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마련된 ‘K-POP 플레이그라운드’가
8월 소리축제 기간 전주를 찾는다. 랜덤플레이댄스와 유명 댄스팀의
퍼포먼스, K-POP댄스와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후원 **VKCC**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VISIT KOREA COMMITTEE

소리축제: 네 계절

Sori Festival: Four Seasons

2024 소리축제는 다양한 사업들을 연간
프로젝트로 기획, 1년 내내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 4월, 올해 소리축제 첫 사업의 시작을 알린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도내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전북도민들에게 일상이 예술이
되는 특별함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월드뮤직센터 공동기획 ‘월드뮤직 아카데미’는
6월부터 7월까지 총 4회로 구성, 반도네온,
시타르 등 젊은 월드뮤직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형태로 꾸러졌다. 7월과 8월에
마련된 ‘소리캠프’는 국/내외 음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음악인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월 30일, 국립국악원 협력으로 진행되는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종묘제례악’은
송년특별공연으로 열리며, 지난해 축제에서
초연된 판소리와 페르시아 음악의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작품 <re:Orient>는 2024년 11월
캐나다 주요 5개 도시 투어가 확정되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본 축제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음악을 미래로,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다.

2024 Sori Festival meets with audiences
throughout the year under a variety of year-
round projects. In April, the “Arts Caravan
with Sori Festival” visited 14 subregions of
the province and presented various genres of
performances to local residents, giving them a
special and enjoyable experience where every
life becomes art.

“World Music Academy,” co-designed with the
World Music Center Foundation, consisted of
four lecture-concerts with active world music
instrumentalists including a bandoneonist and
a sitarist, from June to July. “Sori Camp,” held
in July and August, is aimed at music students
and provides future musicians with various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n November 30th, Jongmyo Jeryeak (royal
ancestral ritual music in Jongmyo shrine), the
greatest masterpiece of the Joseon Dynasty
court, will be performed as a special year-end
concert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Gugak
Center. “re:Orient,” the Korean-Canadian co-
production based on pansori and Persian music
that premiered at last year’s festival, has been
confirmed for a five-city tour of Canada in
November.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s expanding its scope into the future and the
global through various projects.

월드뮤직 아카데미

World Music Academy

올해 소리축제는 6월과 7월, 월드뮤직센터와 공동기획으로 신규 아카데미 프로그램 <월드뮤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아일랜드, 남미, 인도, 동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음악과 악기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과 더불어 젊은 월드뮤직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새롭게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53년 된 옛 전북도지사 관사 '하얀양옥집'에서 진행되어 더욱 이색적인 무대로 펼쳐졌다.

사회 **박종현**(월드뮤직센터 기획자)

6.19.(수)



반도네온 연주자 **임시내**

7.03.(수)



비파리쉬 휘슬과 아코디언 연주자 **박혜리**

6. 19. Wed - 7. 10. 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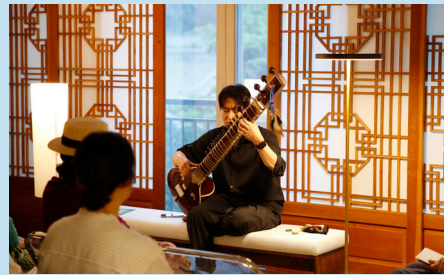
매주 수요일 19:30

하얀양옥집(옛 전북도지사 관사)

In June and July this year, Sori Festival launched a new program "World Music Academy" in collaboration with the World Music Center Foundation. The program offered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Irish, Argentinean, Indian, and East Asian states' musics and instruments, and to musically communicate with young active world music performers and thereby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around the world.



6.26.(수)



시타르 연주자 **한샘바위**

7.10.(수)



비파 연주자 **마롱**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re:Orient >

캐나다 5개 도시 투어

Korean-Canadian

Co-Production <re:Orient >

Five-city Tour in Canada

2024년 11월,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작품 <re:Orient>가 캐나다 주요 5개 도시(밴쿠버, 빅토리아, 토론토, 퀘벡, 몬트리올) 투어를 진행한다. 이 작품은 판소리 다섯바탕의 주요 대목과 페르시아 고음악과 오래된 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지난해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캐나다 음악 단체 콘스탄티노플(음악감독 키야 타바시안)이 협력하여 2023 소리축제 무대에서 초연되었으며, 올해 세계 최대의 아트마켓 시나르(CINARS) 공식 쇼케이스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소리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콘텐츠를(판소리)와 지역예술가 발굴 및 창작지원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이번 투어는 소리축제의 노력과 의지가 빚어낸 좋은 성과다.

In November 2024, <re:Orient>, a Korean-Canadian co-produced work, will tour five Canadian cities (Vancouver, Victoria, Toronto, Quebec, and Montreal). The work is based on the five stories of pansori, and Persian ancient music and poetry. It premiered on the 2023 Sori Festival stage last year in a collaboration between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Constantinople (Canadian music group led by Kiya Tabassian), and became selected as an official showcase work at this year's CINARS, the world's largest art market.

전주에서 만나는

<종묘제례악 >

< Royal Ancestral Ritual Music
in Jongmyo Shrine >
in Jeonju

11월 30일,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국립국악원이 공동주관하는 <종묘제례악>이 전주를 찾는다. <종묘제례악>은 조선 왕실의 가장 큰 행사로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기악과 노래, 춤이 함께 연행되는 것을 말한다.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음악으로 왕실 음악 기관인 장악원 악공들이 연주하던 전통을 국립국악원이 계승하고 있다. 조선 왕실 최고의 품격과 위엄을 엿볼 수 있는 <종묘제례악>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적 발자취가 있는 전주에서 감상해보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On November 30th, "Royal Ancestral Ritual Music in Jongmyo Shrine" will visit Jeonju under the co-organization of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National Gugak Center. The music was composed by King Sejong himself and performed by the musicians of Jangakwon, the royal musical organization,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s musicians continue the tradition. Don't miss this unique opportunity to appreciate "Royal Ancestral Ritual Music in Jongmyo Shrine," a glimpse of the royal dignity and majesty of Joseon Dynasty, in the city of Jeonju, where the historical footprints of the King Taejo (Lee Sunggye), the founder of the dynasty, can be found!

스태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임원

명예조직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직위원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집행위원장 **김희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부위원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교수
 상임위원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 **이화동**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조직위원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부장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원용 전북일보 국장(안주 주재)
김일구 판소리 명창(전문예술법인 온고을소리청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금섭 변호사(법무법인(유)광장(Lee&Ko)변호사)
백학기 시인, 영화인,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CEO
소영주 (주)코리아오티씨 연구소장/중구문화재단 이사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前CNN한국지국장)
신기동 한미회계법인(제1본부 본부장)
심인택 우석대학교 국악과 명예교수(前국립남도국악원 예술감독)
왕기석 판소리 명창(前국립민속국악원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간담체이식혈관외과)
이경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정지영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조유식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최고투자책임자(설립자)

집행위원

한승석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
강권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성악악장
윤종강 음악평론가/연출가
이태백 목원대학교 한국음악학부 교수
김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교수
허윤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블랙스프링 대표
김성국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장
천재현 연출가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

콘텐츠운영부 || 기획팀/무대팀
한지영 부장

기획팀
조성원 팀장
이은주 팀원
장은옥 팀원
강정민 팀원
최나영 코디네이터

무대팀
허 정 팀원
채동석 팀원

대외협력부 || 홍보팀/행사팀
임태영 부장

홍보팀
박수경 팀장
이지환 팀원
유일한 팀원
박소영 팀원
김연아 팀원
박주환 티켓매니저
김경아 티켓고객센터

행사팀
전성호 팀장
전선호 팀원
송지민 팀원
김민준 팀원
임주미 팀원

행정팀
백광일 팀장
최다미 팀원
최윤희 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산업과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화영 문화산업과장
박병윤 예술육성팀장
조현욱 주무관

전주세계소리축제 스태프

무대기술총괄
박기남

무대감독
김응완 김중훈 김성빈 김경훈

무대크루
권수현 김명준 김주찬 서울 안수호
이건희 박종후 안현주 조병도

사이트매니저
박세진 배희주 노민아 조인영 김유진
윤준석 기획
정성준 박다선 티켓
양세인 양은비 유지현 윤주원 이수현
이종길 장성혁 조운현 유지훈 행사

통역
정보민 이와시타 사츠키

음향
이동욱 백영민 김을 모악당/연지홀
김현성 김윤호 김현도
 모악광장/놀이마당
안민주 이주경 김통일 전라감영
이준희 김동훈 김영호 이호진
 중회의장
이진복 이종하 이훈재 유봉준 하정호
유석 성민석 전귀환 김나연 전시장

조명
송인훈 황종현 모악당/연지홀/명인홀
고주는 임백호 안은서 정주혁
 모악당/연지홀/명인홀
안호중 김세미 박민경
 모악광장/놀이마당
임재덕 이다야 야외공연장

구조물
노강섭 권순문 노시영 최희태
 야외공연장

무대
김대한 김중휘 무대디자인
염성준 이민준 김태진 이진우 황정환
 무대제작(야외공연장)
고영민 윤준호 무대제작
 (모악광장/놀이마당/나바위성당)

중계촬영
정윤성 진수미 정다윗 정찬
 야외공연장

LED/발전기
이성희 야외공연장 LED
박종철 야외공연장 발전기

영상
정해인

약기
배종두 김서학 김현성 이승은 최보람

행사시설
김명규, 김용진, 김진형, 유지훈

찾아가는 소리축제
이조은 이준희 김영호 김동훈

학술세미나
이호진 음향

출연진 수송
박성희 진미현 입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스태프

이용재 사무처장

경영관리부
고경환 부장
임익종 정범수 차장
이동수 과장
최미송 대리
유민정 나혜연

문화사업부
박홍재 부장

기획사업팀
이기연 이안나 과장
강성웅 김미라 대리
강석민 김승현 박혜민 엄세훈

무대기술팀
박성일 팀장
정대영 대리
박은성 백우진 배태호 기계감독
장정규 과장
연혁찬 안승주 박수영 이후인 무대감독

무대운영팀
박영모 팀장
남성훈 과장
정영모 조중호 장준오 음향감독
박성진 차장
송두영 과장
김찬웅 고은빈 박대한 조명감독

고객지원부
황이동 부장
김미미 차장
안은홍 대리
함지수 노수영 양현규 손예은

소리천사

기획팀
강지선 김지빈 김채은 나진희
문종현 박건우 신동은 윤주혜
이경아 이상건 이성미 이소은
이승은 आय디 임진경 정바울
정재민 정재환 조아름 최유빈
최유영 최진욱 홍세민

무대A팀 | 모악당/연지홀/전시장/중회의장
김도현 박민주 박재현 배보연
손지연 오승빈 오재근 육승은
육아란 정희민 한상빈

무대B팀 | 야외공연장/모악광장/전라감영/
 나바위성당/명인홀
김다빈 김서연 김주원 손민섭
송윤아 송채원 신동영 신인준
유진서 이서린 임주는 전주현
조서현 최서영 하승대 한수현
한웅희 홍세주

홍보팀
김려원 김서연 김소현 김유진
김채현 남찬영 박민경 박연우
배은서 서의동 소보란 신혜림
정승환 정시환 최성원

행사팀
김도엽 김동현 김민호 김승희
김아람 김영선 김주영 김주희
박소은 백현민 서가연 서영주
서희정 유다은 유정민 유혜수
이동현 이은혜

사전소리천사(미소천사)팀
고 혁 김예지 이유리
정미랑 정수빈 하수빈



아임얼라이브 콤부차를
만나보세요!

아임얼라이브 콤부차

제로맛고 제대로

506 hour

506시간
자연발효 원액 그대로

99.14%

콤부차 발효 원액함량 99.14%
*맛별로 함량차이가 소량 있습니다.

0%

합성첨가물,
인공감미료 ZERO

Organic

유기농 원재료 사용
녹차&홍차잎, 사탕수수원당

3 Low

칼로리, 당, 카페인 LOW



I'M ALIVE

P A M S

8(TUE)-11(FRI)
OCTOBER 2024

2024.10.8.(화)
-10.11.(금)

VENUES
National Theater of Korea,
Seoul Namsan Gukakdang

장소
국립중앙극장, 서울남산국악당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2024

2024 서울아트마켓

JOURNEY TO
KOREAN MUSIC
2024

2024 저니투코리아안뮤직

8(TUE)-11(FRI)
OCTOBER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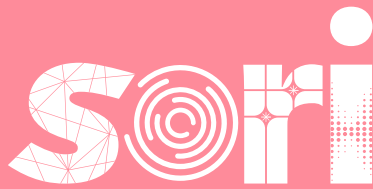
2024.10.8.(화)
-10.11.(금)

VENUES
National Theater of Korea,
Seoul Namsan Gukakdang

장소
국립중앙극장, 서울남산국악당

JOURNEY TO
KOREAN MUSIC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